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 (I)

-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과 그 의미들을 중심으로 -

차선근

대순종교문화연구소 · 연구위원

- | | |
|----------------------|----------------------|
| I. 여는 글 | III. 인신강세의 지평에서 본 최고 |
| II. 도교의 지평에서 본 최고신 표 | 신 표현들과 그 의미 |
| 현들과 그 의미 | IV. 닫는 글 |

I. 여는 글

유신론 종교 전통에 있어서, 교리나 의례, 제도, 도덕률, 시설물, 예술품, 공동체 조직, 심지어 인격까지 외부에서 관찰되는 유·무형의 제반 모습들은 모두 신앙의 표현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 말은 유신론 종교 전통에서 신앙이 지니는 위상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에는 그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대순진리회의 신앙 대상은 구천응원너성보화천존강성상제, 즉 구천상제이다.²⁾ 구천상제께서는³⁾ 하

1)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길희성 옮김 (질곡: 분도출판사, 1991), pp.229-255 참조.

2) “本會의 信仰對象은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이다.”, 『道憲』 제3조.

3) 논문에서는 신격에 대한 존칭을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글은 중단 간행물에 실린다는 점, 그리고 주 독자층이 도인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존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느님, 최고신, 궁극적 실재, 초월적 절대자이신 분으로 이해된다.

대순진리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전라도에서 활동하셨던 강증산(姜甌山, 1871~1909)께서 구천상제라는 사실을 믿는다. 20세기 이후 한국사회는 합리와 이성, 인간 중심주의를 강조하는 서양 문화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었고, 그 속에서 서양식 근대 계몽 교육을 받아 온 현대 한국인들이 ‘특별한 한 인간’을 ‘하느님’으로 믿는 대순진리회의 신앙을 쉽게 이해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신앙의 이유에 대해 『전경』은 다음과 같이 말해두고 있다.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⁴⁾

증산께서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9년간 후천의 새로운 선경(仙境)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천지에 맺힌 모든 원(冤)을 풀어나고 천지의 운행 법칙을 상극에서 상생으로 조정하는 일련의 종교 활동을 벌이셨으니, 이것을 천지공사(天地公事)라고 한다. 옛날 한국에서는 관아의 관장(官長)이 공무를 처결하기 위해 수하 관원들을 모아 회의를 열 때 ‘공사(公事)를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였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증산께서는 신명들을 모으고 종도들을 참관시키면서 천지의 구조와 운행을 재조정하셨던 당신의 행위를 ‘천지의 공사’라고 불렀다.⁶⁾ 대순진리회가 증산을 하느님으로 신앙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천지공사 때문이다. 천지를 뜯어고치는 공사는 우주를 주재하는 절대자가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순진

4) 『전경』(1974), 예시 9절.

5) 홍범초, 『증산교개설』(서울: 창문각, 1982), p.77.

6) 최동희·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pp.63-64;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연구-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9 (2012), p.221.

리회는 증산을 하느님인 구천상제로 신앙한다는 말이다.⁷⁾

신앙의 대상에 관한 연구는 그 종단의 조직과 성격, 전통을 구성하는 신념체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⁸⁾ 대순진리회의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를 주제로 하는 연구 역시 그러한 맥락의 의의를 가진다.

그동안 이런 연구 업적들은 꽤나 누적되어왔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한국·중국 종교사의 최고신 관념과 ‘상제’라는 용어 사용, 고대의 제천의례를 살핀 것들이 있다. 대체로 이런 연구들은 한국·중국 종교사에 나타나는 최고신 관념과 대순진리회의 구천상제 관념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수행되고 있다.⁹⁾ 둘째, 최고신인 구천상제 관념의 구조와 특성을 드러내려는 연구들로서, 구천상제를 중심으로 수많은 신들이 인간계와 유사한 형태의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구천상제의 주재를 받는 하위의 신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왔고,¹⁰⁾ 천지인 삼계와 교감하며 인간에게 외재하는 주재천이자 혁세주로서 의인화된 인격신인 구천상제는 삼계의 대권을 지닌 지고무상(至高無上)한 천신(天神)으로서 만물을 생성·변화시키며,¹¹⁾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존재였던 최고신이 인간의 모

7) 도전 박우당(朴牛堂)께서도 “천지신명들이 구천에 겁액을 하소연하였으므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하였고, 삼계대권을 쥐고 계시며 상도(常道)를 잃은 천지를 바로 잡으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하였으니 하느님이신 것이다.”라고 훈시하신 바 있다. (음)1989년 4월 4일 도전 훈시 (대순진리회 내부 자료); 「상제님의 탄강4-인간이신 증산을 상제님으로 믿는 이유」, 『대순회보』 74 (2007), pp.10-15;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解冤結과 대순진리회의 解冤相生 비교연구」, 『종교연구』 65 (2011), pp.105-106.

8) 윤이흥, 『한국종교연구』 6 (과주: 집문당, 2004), p.14 참조.

9) 최동희, 「대순신앙의 대상에 대한 연구(I)」, 『대순사상논총』 1 (1996);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 『대순사상논총』 1 (1996); 이경원, 「대순상제관 연구」, 『대순사상논총』 1 (1996);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二)」, 『대순사상논총』 2 (1997); 노길명, 「대순사상에서의 경천·수도의 의미와 성격」, 『대순진리학술논총』 7 (2010), p.73 참조.

10) 이경원, 「대순신관과 신인조화의 이상」, 『대순사상논총』 3 (1997), p.513; 최동희·이경원, 앞의 책, pp.41-42; 이경원, 「대순사상의 신관연구」, 『종교연구』 34 (2004), p.377 참조.

11) 고남식, 「선천 천관과 상제의 초월성」, 『대순사상논총』 8 (1999); 고남식, 「상제 초월성에 대한 외경심의 양상」, 『대순사상논총』 10 (2000); 황선명, 「한국

습으로 직접 나타남으로써 하늘과 땅, 상제와 인간이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과 더불어 호흡하고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하는 하느님이라는 데 그 핵심적인 특징이 있으며,¹²⁾ 구천상제 관념은 범신론·다신론·유일절대신론 등이 함유된 종합적 성격의 창조적·자유주의적 신관으로 설명되고,¹³⁾ 구천상제의 인신강세(人身降世)라는 설정은 서구 기독교의 성육신(成肉身) 관념에 영향을 받은 것이며,¹⁴⁾ 불교의 권화(權化, avatāra)사상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¹⁵⁾ 등이 있다. 셋째로는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 도주 조정산(趙鼎山)이라는 종통계승자에 의해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제와 도주로 이어지는 종통의 흐름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있다.¹⁶⁾

이러한 연구들은 신앙 대상에 대한 일정한 설명과 이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 역시 발견된다. 그것은 첫째, 한국·중국 종교사에 보이는 최고신 관념, ‘상제’라는 용어 사용, 그리고 제천의례를 주제로

종교사에 있어서 대순진리 종교사상의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p. 229; 노길명, 앞의 글, pp.75-76 참조.

- 12) 이경원, 「한국 근대종교에 나타난 天의 인격성 고찰」, 『한국종교사연구』 7 (1996), p.328; 이경원, 「대순신관과 신인조화의 이상」, p.513; 노길명, 앞의 글, pp.79-80 참조.
- 13)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pp.88-89; 이항녕, 「신인조화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3 (1997), p.40; 안중운, 「철학적 측면에서 본 신인조화론」, 『대순사상논총』 3 (1997), p.146; 주현철, 「신인조화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3 (1997), p.594; 이경원, 「대순사상의 신관연구」, p.387; 김홍철, 「신인조화 사상의 원리와 그 실천이념」, 『대순진리학술논총』 3 (2007), p.115; 류재갑, 「신인조화 사상의 의미와 실천적 함의」, 『대순진리학술논총』 3 (2007), p.160; 김홍철, 「구천상제를 모시고 받드는 경천·수도」, 『대순진리학술논총』 7 (2010), p.49 참조.
- 14) 김중서, 「더 넓은 ‘대순사상’의 이해를 향하여」,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p.131; 김중서,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종교와 문화』 16 (2009), p.30.
- 15) 윤기봉, 「불교 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pp.16-20; 최동희·이경원, 앞의 책, p.161; 이경원,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문사철, 2010), pp.425-441; 진경애, 「보천교와 무극도의 신앙대상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 25 (2011), p.189.
- 16) 최동희, 「대순신앙의 대상에 대한 연구(I)」;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 이경원, 「대순상제관 연구」;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二)」; 고남식, 「선천 천관과 상제의 초월성」; 고남식, 「상제 초월성에 대한 외경집의 양상」.

삼은 연구들의 경우, 대순진리회 구천상제와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의 최고신 관념이나 ‘상제’ 용어의 역사적 사용 사례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 그것들이 현재의 대순진리회 최고신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살피거나 구천상제라는 용어와 관념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 적이 없었다는 말이다. 제천의례와 관련한 최고신 서술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의 사례에 대한 나열만 있었을 뿐, 대순진리회의 최고신 관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는 대순진리회 의례와의 비교를 통해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고유한 특성과 의미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 밝히려는 시도가 없었다.

둘째,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 보여주는 능력을 일일이 나열하여 천지인 삼계의 대권을 지니는 존재임을 역설하거나, 그 신은 천계의 조정을 운영하고 하위의 군신(群神)들을 거느리며 만물을 다스리는 지고무상한 존재라고 규정한 뒤 외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들은, 타 종교들에도 존재하고 있는 신성한 존재들과의 차별점을 나타내지 못하며 신앙 고백적이기만 할 뿐 학문적이지는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대순진리회 최고신 관념의 특징을 추출하는 연구들은 상제의 인신강세에 포커스를 맞추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 고유성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생을 마감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대순진리회의 최고신 관념은 한국·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종교사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미증유의 것이니 만큼, 성육신이나 권화사상 등 지난 과거의 종교사상을 활용해 인신강세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관념은 고대 그리스·로마 신화, 힌두교, 불교, 기독교 등에도 발견되지만, 그 세부 내용과 특징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다름’을 지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사상을 타 종교사상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은 그 이해의 편이성을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름’에 대한 관찰을 포기하고 외부 종교사상의 ‘권위와 내용’에 편승하여 묻어가려는 태도에 그쳐버린다면, 대순진리회의 고유성을 탈각시킨 채 문화적 종속주의에 스스로를 묶어두려 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신앙의 대상은 종통과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 상제와 도주의 일대기를 나열해 놓는 전기적 서술들 역시 종단 역사의 각론을 구성하는 데 그칠 뿐, 해석학적 관점을 이용하여 최고신의 고유성을 추출해내는 심도 있는 접근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서 그간 시도되었던 연구들이 그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고 하더라도, 대순진리회 신앙의 대상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다.

필자는 신앙의 대상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기 전에,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나타내는 용어로 ‘상제관’을 사용하고자 한다. 물론 이 용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온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제관’이라고 하는 용어에 일정한 개념과 범주를 부여해보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신앙의 대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때 종학(신학)¹⁷⁾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종교학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을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종학(신학) 관점이란 연구자가 자신의 신앙을 전제로 하는 연구 태도를, 종교학 관점이란 연구자가 신앙을 배제하는 연구 태도를 의미한다.

‘○○관’, 이를 테면 우주관, 인간관, 자연관이라는 용어는 각각

17) 대체로 신앙을 전제로 하는 학문은 신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대순진리회는 대순종학과(大巡宗學科)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신학 대신 종학(宗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종학이 신학과 어떻게 다른지, 신학 대신 종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해명된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종학과 신학을 병기할 것이다.

우주에 대한 설명과 이해, 인간에 대한 설명과 이해, 자연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말한다. 그렇다면 ‘상제관’이란 상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최고신인 상제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상제관, 즉 상제에 대한 설명과 이해는 기본적으로 상제의 ‘존재’를 전제한다. 대순진리회에서 상제의 ‘존재’는 상제께서 구천에 가만히 계신다는 고정적인 방식이 아니라, 상제께서 구천에 거하시다가 천하를 대순하신 뒤, 인간인 증산의 몸으로 이 땅에 강세하여 일정 기간 인간의 삶을 살다 천지공사를 시행하시고, 다시 구천으로 되돌아가 계신다는 역동적인 방식을 토대로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인간이었던 증산을 상제로 믿는 신앙을 전제로 하는 용어로 상제관을 규정할 것이다. 즉 상제관 연구는 대순종학(大巡宗學)을 구성하는 중심축으로서 상제 신앙의 내용과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뱅크를 설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제관 연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은 상제관을 구성하는 기초자료들을 모으는 일이다. 대순진리회 최고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성격은 어떠한 내용과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그로부터 어떤 세부 아젠다(agenda)들을 뽑아 연구의 주제로 삼을 수 있는지 정리하고 살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서설적(序說的) 작업이 근간이 되면, 비로소 본격적인 상제관 연구는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서설적 작업은 첫째, 『전경』에 나타나는 증산의 언행과 자취를 분석하여 최고신의 신명계 위치와 역할, 권능 등을 정리해보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둘째는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을 나타내는(혹은 나타냈던) 여러 표현들을 천착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의미들을 고찰하는 것이다. 『전경』이나 『대순진리회요람』 등을 살펴보면,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강성상제 외에도 구천대원조화주신, 구천상세군, 무극신, 태극지천존, 태일, 옥청진왕, 삼청진왕, 천주, 개벽장, 해원신 등 최고신에 대한 여러 표현

들이 발견된다.¹⁸⁾ 최고신을 설명·이해하고 그 고유성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떤 내용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씩 분석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이 표현들 가운데 몇몇은 과거에만 사용되었을 뿐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표현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최고신 관념 형성에 일정하게 기여했을 것임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셋째는 증산께서 전하신 진법주(眞法呪)와 15신위를 토대로 해서 최고신의 위격이나 구천상제와 옥황상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과 이해[兩位上帝觀]를 살피고, 타 증산교단들의 증산관(증산에 대한 설명과 이해)과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 서설적 작업들 가운데 첫째는 선행 연구들에서 어느 정도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너뛰고, 이 글에서는 둘째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다. 나머지 셋째 주제는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 서설(Ⅱ)」라는 제목으로 추후에 다루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자는 최고신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구분하여, ‘편의상’ 도교적 지평(Ⅱ장)과 인신강세의 지평(Ⅲ장)에 두고 그 내용과 의미를 서술할 것이다. 전자로는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강성상제, 삼청진왕, 옥청진왕, 태일, 태일성철, 무극신, 태극지천존을, 후자로는 구천대원조화주신, 구천상제군, 천주, 개벽장, 해원신을 넣을 것인데, 사실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을 모두 인신강세의 지평에서 다룰 수도 있다. 인신강세는 대순진리회 최고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최대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러한 분류를 하는 이유는, 도교와의 관련성을 따로 추출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적 때문임을 미리 밝혀둔다.

18) 최고신에 대한 표현들에는 대인(大人)이나 성사(聖師), 신인(神人) 등도 있지만, 이들은 증산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것일 뿐 증산의 권능이나 신격을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기에 이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전경』, 행록 4장 22절, 교법 1장 17절, 교법 2장 41절, 제생 17절 참조. 또한 대순진리회에서 사용되는 12종의 주문에 등장하는 신격 명칭들 가운데 최고신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표현들(이를 태면 태을천상원군이나 태을성두우군, 신성대제 태을현수 등) 역시 제외하기로 한다.

II. 도교의 지평에서 본 최고신 표현들과 그 의미

1.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姜聖上帝)

1) 구천에 거주하는 우주 법칙과 질서의 주재자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에 대한 표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부터 살펴보자.

이 존칭은 도주께서 1925년 무극도장을 창도하실 때 처음으로 정하신 신위이다.¹⁹⁾ 물론 대순진리회의 전신(前身)들인 무극도나 태극도의 취지서에 이러한 신격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무극도에서 증산을 옥황상제로 묘사하고 있었다는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사를 근거로,²⁰⁾ 이 신격이 1925년이 아닌 훨씬 후대에 정립된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²¹⁾ 하지만 무극도 시절에 사용된 주문 중 하나인 구령삼정주(九靈三精呪)에 ‘吾奉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이라는 구절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²²⁾ 무극도 당시 이미 이러한 신격이 사용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대순진리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라는 신위 명칭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두고 있다.

구천(九天)이라 함은 전경(典經)에 『... 모든 신성(神聖)·불(佛)·보살(菩薩)들이 회집(會集)하여 구천(九天)에 하소연

19) 『전경』, 교운 2장 32절.

20) 이에 대해서는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p.273 참조; 무극도에 대한 기록은 『무극대도교 개황』(1925)과 『조선의 유사종교』(1935) 등이 있는데, 무라야마 지준이 저술한 『조선의 유사종교』는 그 정확성에서 문제가 있다.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종교연구』 70 (2013), pp.260-262 참조.

21)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pp.243-244.

22) 『전경』, 교운 2장 42절.

하므로… (교운一一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우주(宇宙)를 총괄(總轄)하시는 가장 높은 위(位)에 계신 천존(天尊)께 하소연 하였다는 말이니 그 구천(九天)은 바로 상제(上帝)께서 삼계(三界)를 통찰(統察)하사 건곤(乾坤)을 조리(調理)하고 운화(運化)를 조련(調鍊)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位)임을 뜻함이며,

응원(應元)이라 함은 모든 천체(天體)뿐만 아니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천명(天命)에 응(應)하지 않고 생성(生成)됨이 없음을 뜻함이며,

뇌성(雷聲)이라 함은 천령(天令)이며 인성(仁聲)인 것이다. 뇌(雷)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結合)으로써 성뢰(成雷)된다. 뇌(雷)는 성(聲)의 체(體)요, 성(聲)은 뇌(雷)의 용(用)으로써 천지(天地)를 나누고 동정진퇴(動靜進退)의 변화(變化)로 천기(天氣)와 지기(地氣)를 승강(昇降)케 하며 만물(萬物)을 생장(生長)하게 하고 생성변화(生成變化) 지배자양(支配滋養)함을 뜻함이며,

보화(普化)라 함은 우주(宇宙)의 만유(萬有)가 유형(有形)무형(無形)으로 화성(化成)됨이 천존(天尊)의 덕화(德化)임을 뜻함이며,

천존(天尊)이라 함은 군생만물(群生萬物)을 뇌성(雷聲)으로 보화만방(普化萬方)하시는 지대지성(至大至聖)한 삼계(三界)의 지존(至尊)임을 뜻함이며,

강성상제(姜聖上帝)라 함은 우주(宇宙) 삼라만상(森羅萬象)을 삼계대권(三界大權)으로 주재(主宰) 관령(管領)하시며 관감만천(觀鑑萬天)하시는 전지전능(全知全能)한 하느님의 존칭(尊稱)임을 뜻함이다.²³⁾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진인(海島真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삼십육천(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뇌성보화천존상제(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²⁴⁾

23) 『대순진리회요람』 (1969), pp.6-7.

24) 『전경』, 교운 2장 55절.

이로부터 짚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신위가 구천이라는 최고 신의 공간적 거주 위치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아홉 겹[九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증산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만,²⁵⁾ 구천에 속하는 각각의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밝혀주는 자료는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구천이 동서양의 구중천(九重天) 관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들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동양에서는 하늘이 9층으로 되어있고 천상에는 9개의 천문이 있다는 구중천 관념이 전국시대부터 이미 있어 왔다.²⁶⁾ 서양에서도 기원전 1200년 경 이집트인들이 숫자 구(九)를 성수(聖數)로 보고 여러 신들이 융합된 복합신(複合神, The Combination of Gods)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²⁷⁾ 동서양에서 구중천 각각의 하늘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한데,²⁸⁾ 그 가운데에서 일(日)·월(月)·오성(五星: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칠중천(七重天)을 이루고, 28수가 팔중천(八重天), 종동천(宗動天: 하위 8개 하늘을 인솔하는 최상위의 하늘)이 마지막 구중천(九重天)을 이룬다²⁹⁾는 설명 방식은 참고할 만하다. 대순진리회가 음양오행(일월오성에 대비된다)과 천문 28수를 우주의 공간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기 때문이다.³⁰⁾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구천에 하소연한다’는 말을 쉽게 써 왔다. 사실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인 구천에 최고신이 거주한다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하늘관이다.³¹⁾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 구천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그러한 하늘관을 그대

25) 같은 책, 행록 4장 4절.

26) 何新, 『신의 기원』, 홍희 역 (서울: 동문선, 1990), p.158.

27) 배영희, 「巫歌에 나타난 數 ‘九’의 상징성」, 『한국민속학보』 5 (1995), p.86.

28) 배영희, 같은 글 참조.

29) 李叔選, 『道教大辭典』 (臺北: 巨流圖書公司, 1986), p.43.

30) 이재원, 「한국 신종교의 우주관 연구-대순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p.24-33.

31) 김승혜, 「한국인의 하느님 관념」, 『종교신학연구』 8 (1995), p.120.

로 잇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늘관은 유일신 신앙을 특징으로 하는 이슬람교·기독교와 비교했을 때 꽤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해준다. 이슬람교의 경우, 7세기 초엽 아라비아 메카 교외의 히라산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무함마드가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로 아랍의 최고신인 알라를 만나는 신비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Night Journey), 그때 무함마드는 일곱 층으로 된 하늘을 차례로 올랐다고 한다. 그는 첫 번째 하늘에서 아담, 두 번째 하늘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 세 번째 하늘에서 요셉, 네 번째 하늘에서 이녹, 다섯 번째 하늘에서 아론, 여섯 번째 하늘에서 모세, 일곱 번째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보았는데, 알라가 있었던 곳도 바로 그 일곱 번째 하늘이었다.³²⁾ 알라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야훼(Yahweh) 역시 숫자 칠(七)과 일곱 하늘로 상징화된다.³³⁾ 대순진리회의 최고신도 알라나 야훼처럼 하늘의 중층 구조와 그 공간적 위치로써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과는 다른 구천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둘째, 최고신이 구천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단지 ‘거주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고신이 우주의 전 질서와 법칙을 주재함을 상징한다. 앞선 인용문에 따르면, 최고신은 퇴(雷)인 전기로써 만물을 다스리며, 천상의 전기는 바다에 들어있다고 한다. 번개와 천둥, 전기를 말한다고 해서,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 단지 이것만을 주재하는 존재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을 천둥과 번개를 주관하는 자연현상의 인격화에 따른 산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퇴(雷)는 음양이기(陰陽二氣)의 결합이다. 최고신이 우주 만물의 기본 원리인 음양이기의 주재자라는 사실은 곧 그 분이 자연 법칙의 주재자임을 뜻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³⁴⁾ 이와 같이 구천응원벽성보화천존이라는 신격

32) 최영길, 「무함마드의 승천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13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pp.177-204; Kessler, Gary E., *Studying Religion* (New York: McGrawHill, 2006), pp.149-150.

33)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참조.

명칭 자체는 최고신이 구천에 거한다는 사실 외에도, 최고신의 만물 통치 원리까지 품고 있다.

2)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옥추경』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신격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도교적 지평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이 명칭을 중국도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동양에는 우레를 주관하는 뇌신(雷神)이 사람 머리에 용의 몸을 하고 자신의 배를 두드려 소리를 내며³⁵⁾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고 알려져 왔다. 이 뇌신은 팔괘를 처음 창시했다고 하는 고대의 제왕 태호복희씨의 아버지로 비정되며, 이 뇌신의 상급신이 바로 뇌제(雷帝) 또는 뇌조(雷祖)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고 한다. 이 신은 천상계의 가장 높은 곳인 삼청경(三清境) 중의 옥경(玉境)에 거주하고 있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아버지이자 모든 신들의 스승이며, 인간의 재난과 행복, 생명을 주재하고 인간을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특히 지옥에 떨어진 인간들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믿어진다.³⁶⁾

이 신격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때는, 이 신격이 주신(主神)으로 되어 있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옥추보경(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樞寶經)』(이하 『옥추경』으로 약칭함)이 유행하면서부터이다. 중국 북송 말기에 형성된 도교 신소파(神霄派)의 핵심 경전이었던

34) 자세한 내용은 차선근, 「해인에 대한 고찰」, 『상생의 길』 2 (2004), pp.171-179, pp.185-189 참조.

35) “雷獸即雷神也，人面龍身，鼓其腹者。” 『山海經』 卷九 「大荒東經」.

36) 『道敎の本』 (東京: 學習研究社, 1992), p.67; 마노 다카야, 『도교의 신들』, 이만옥 옮김 (서울: 들녘, 2001), pp.218-219; 鍾靈馨光, 『道敎諸神說』 (台北: 益群書店股份有限公司, 2002), pp.138-139; 馬書田, 『中國道敎諸神』 (台北: 國家出版社, 2003), pp.349-358; 구보 노리타다, 『도교의 신과 신선 이야기』, 이정환 옮김 (서울: 뿌리와이파리, 2004), pp.147-148;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과주: 김영사, 2010), p.132.

『옥추경』의 출현 연대는 8세기부터 14세기 사이로 추정될 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³⁷⁾ 어쨌든 이 시기에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신앙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현재도 『옥추경』은 도교의 경전으로 여전히 그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고, 중국 도교의 본산인 북경 백운관(白雲觀)은 뇌조전(雷祖殿)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모시고 있으며, 대만에도 이 신격을 모시는 도관(道觀)들이 많기 때문에 『옥추경』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신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⁸⁾

『옥추경』은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도 수입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되었고,³⁹⁾ 『연생경』, 『태일경』, 『용왕경』, 『칠성경』 등과 함께 조선 초기 도교의식을 주관하는 관청이었던 소격서(昭格署)의 관리선발 취재 과목으로 선정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였다.⁴⁰⁾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뇌성보화천존기우초(雷聲普化天尊祈雨醮)」와 이승소(李承召, 1422~1484)의 「뇌성보화천존초(雷聲普化天尊醮)」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격서에서 기우제를 지낼 때 그 발원의 대상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으로 했다는 사실도⁴¹⁾ 『옥추경』의 위상이 상당하였음을 입증해준다. 이 경전은 민간에도 영험한 수련서나 권선서(勸善書)로 알려졌고, 또한 치병(治病) 경전이라 하여 재액과 병마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읽혔다.⁴²⁾

대순진리회의 최고신과 『옥추경』의 주신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강성상제’가 덧붙여진 형태인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인간강세를 한 인격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

37) 구중회는 『옥추경』이 14세기 초엽에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 구중회, 『옥추경 연구』(서울: 동문선, 2006), pp.33-55 참조.

38) 중국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에 대한 신앙은 지금도 보편적인 것이라고 한다. “在中国民间, 雷声普化天尊信仰非常普遍.” 李遠國, 『神霄雷法』(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3), p.180.

39) 김낙필,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윤리사상」, 『한국도교의 현대적 조명』(1992), p.361.

40) 김낙필, 『조선시대의 내단사상』(서울: 한길사, 2000), pp.71-74.

41) 『동문선』 XI (민족문화추진회, 1982), pp.392-395.

42) 구중회, 앞의 책, pp.157-169.

로, 『옥추경』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는 차이가 있는 개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⁴³⁾ 하지만 『전경』의 구령삼정주(九靈三精呪)에 ‘강성상제’가 배제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⁴⁴⁾ 『옥추경』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역시 못 신명들에게 가르침을 내리는 인격신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사실 그 명칭의 동일함만으로도 관련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옥추경』의 주요 내용인 ‘사십팔장(四十八將)’,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⁴⁵⁾ ‘삼십육천(三十六天),⁴⁶⁾ ‘구령삼정(九靈三精)에 대한 해설들이⁴⁷⁾ 『전경』과 『대순진리회요람』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 후술하겠지만 『옥추경』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또 다른 명호인 옥청진왕(玉淸眞王)이라는 명칭이 『전경』에도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존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밀접한 관련성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옥추경』의 주신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그 생일이 음력 6월 24일[雷公誕]이라고 한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 날짜는 증산의 화천일과 정확히 일치한다.⁴⁸⁾

그렇다면 대순진리회는 한국의 민족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최고신의 명칭만큼은 중국도교, 특히 『옥추경』에서 차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증산께서 천지공사를 시행하실 때 중국 종교전통인 유교, 인도 종교전통인 불교, 또 중국 종교전통인 도교까지 포함하는 선(仙)⁴⁹⁾ 등, 세계 우수한 문화들의 정수를 뽑

43)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한 비교」, 『신종교연구』 24 (2011), p.138, p.141.

44) 「吾奉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淸眞王律令」 『전경』, 교운2-42.

45) 『玉樞經』, 「道以誠入章第七」.

46) 같은 책, 「雷師啓日章第五」.

47) 같은 책, 「召九靈章第二」.

48) 또 6월 24일은 관성체군이 태어난 날이라고도 한다. 진기환, 『중국의 토속신과 그 신화』 (서울: 지영사, 1996), p.97, p.99.

49) 여기에서 仙은 한국의 고유 신앙과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유입된 도교적 요소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용휘, 「한국 仙道の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 『동양철학연구』 55 (2008), pp.141-142.

아 쓰셨음을 감안하면,⁵⁰⁾ 대순진리회가 중국도교에 기존하고 있는 신격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실의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들을 추가로 더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신격 명칭의 출처가 표면적으로 중국도교이기는 하지만 그 연원은 중국의 화하계(華夏系)가 동이계(東夷系)로 인정된다는 사실이다. 전술했듯이 중국에서는 태호복희씨의 아버지가 뇌택(雷澤)에서 사는 뇌신이며, 뇌신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직속 신하로 규정되어 있다. 태호복희씨는 동이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태호복희씨 라인의 상위에 있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역시 동이계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한국의 대표적 신화(神話)학자인 정재서의 축적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신화에 등장하는 상당수의 문명신, 이를테면 태호복희씨, 농업과 의술의 신 염제(炎帝), 불의 신 축융(祝融), 수래의 신 길광(吉光), 배의 신 번우(翻羽), 활의 신 반(般), 가무의 신인 제준(帝俊)의 여덟 아들, 전쟁의 신 치우(蚩尤)뿐만 아니라 과보(夸父),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 칠성신, 태을(太乙),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까지 모두 동이계의 신이라고 한다.⁵¹⁾ 이 학설은 일본·중국의 도교와 신화, 민속 연구자들에게도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⁵²⁾

물론 중국 동쪽에 거주하는 주민을 통칭하는 개념인 동이계는

50) 『전경』, 교법 3장 23절, 예시 12절.

51) 정재서, 「한국 도교의 고유성」, 『한국 전통사상의 특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p.199, p.206;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p.159; 정재서,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중국신화 속의 한국신화』, 『중국어문학지』 25 (2007) 참조; 특히 태호복희나 염제신농 같은 동이계 신들이 황제현원과 같은 화하계 신들보다 기원이 더 오래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은 동이계가 중국 대륙에서 먼저 문명을 주도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pp.140-141, pp.212-213.

52) 대륙 문명의 태동기에 동이계의 영향력이 지대했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현재 중국 당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 그럼에도 양심적인 국내외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문명의 태동기에도 한반도 세력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던 사실 역시 일본 학자라면 누구나 다 알지만 양심적인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지역과 주민이 달리 구성되는 것이니 만큼, 동이계 민족 모두가 다 한국의 조상은 아니며 동이계의 신들 역시 모두가 한국의 신들은 아니다.⁵³⁾ 여기에서 저명한 도교학자인 안동준의 주장을 살펴본다. 우선 그는 도교의 최고신인 원시천존(元始天尊)을 동이계열의 부여·고구려 고대 신앙과 관련이 있는 최고신임을 해명한다. 대개 원시천존은 ‘부려원시천존(浮黎元始天尊)’으로 표기되는데, 중국도교는 부려(浮黎)가 막연히 중국의 동북방 지역을 가르치는 용어라고만 해설하지만 안동준은 부려가 동북아시아에서 세력을 떨쳤던 부여라는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고증하였다. 또한 그는 『옥추경』이 부려원시천존의 아들을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으로 규정한다는 점을 들어, 『옥추경』은 부여와 그를 계승한 고구려의 북방계 고유 신앙을 도교적으로 변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⁵⁴⁾

정제서와 안동준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부여와 고구려의 신앙에 뿌리를 둔 최고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고려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된 『옥추경』의 신격 명칭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연원만큼은 중국이 아니라 동이계의 부여와 고구려로 이어지는 한국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한국과 중국 민중들의 오래된 염원을 풀어주기 위한 해원의 필요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 8~14세기 이후 현재까지 거의 1000년 전후의 기간 동안 한·중 동북아 민중들이 중시했던 『옥추경』은 누구든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부르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이 풀리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미래 세상에 일체의 중생과 하늘의 용[天龍]과 귀신이 원

53)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서울: 산치림, 2005), pp.36-37; 정제서,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중국신화 속의 한국신화」, pp.190-191.

54) 안동준, 「북방계 신화의 신격 유래와 도교 신앙」, 『도교문화연구』 21 (2004), pp.23-34 참조.

(願)을 내어 한 가지로 나의 이름(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부르면 그 소원이 공기 중에 흩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 주리니, 내가 마땅히 몸으로써 보여주고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설하노라.”⁵⁵⁾

“만약 미래 세상에 어떤 중생이든지 나의 이름을 전해 듣고 그윽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한 번 혹은 다섯 번이나 일곱 번, 천백 번 부르면 내가 즉시 시방세계에 모습을 드러내어 마음을 움직여 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하여 주리라.”⁵⁶⁾

“물과 불의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곧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불러라.”⁵⁷⁾

“이 경을 몸에 지니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귀신들이 두려워 하나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일심으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부르면 모두 다 벗어날 수 있나니라.”⁵⁸⁾

이러한 입장은 그 이름만 불러도 구제 받을 수 있다는 불교의 아마타신앙과 유사하다.⁵⁹⁾

『옥추경』은 오랫동안 민간에서 광범위하게 신앙되어 왔고 도교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지만, 합리와 이성을 강조하는 유학자들은 그 서적을 위서(僞書)로 공격해왔다.⁶⁰⁾ 그 이유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⁶¹⁾ 사실상은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대신 특정한 신을 찾지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옥추경』의 기복적 성격 때문이었다. 이는 유

55) 『玉樞經』, 「心蓬此道章第五」, “願於未來世一切衆生天龍鬼神一稱吾名悉使超渙如所否者吾當以身身之爾等洗心爲爾宣說.”

56) 같은 책, 「說寶經章第九」, “若未來世有諸衆生得聞吾名但冥心默想作是念言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惑一聲五七聲惑千百聲吾卽化形十方運心三界使稱名者咸得如意.”

57) 같은 책, 「說寶經章第九」, “水火不受卽稱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58) 같은 책, 「說寶功德經章第十五」, “佩帶此經衆人欽慕鬼神所畏遇諸險難一心稱名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悉得解脫.”

59) 김낙필,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윤리사상」, p.362.

60) 이능화, 『조선포교사』, 이종은 옮김 (서울: 보성문화사, 2000), p.269;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다카시, 『조선포교의 연구(하)』, 심우성 옮김 (서울: 동문선, 1991), p.240.

61) 구중희, 앞의 책, pp.20-22.

학자들이 도교를 공격하는 주된 논리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민중들에게는 합리적이니 학문적이니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액을 면하고 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다. 과거 천 년 전 후의 시간 동안 부당한 사회제도와 탐욕스런 관리들에게 짓눌리던 한국과 중국의 힘없는 민초들이 한줄기 희망의 끈이라도 잡아보고자 구원의 손길을 약속한 『옥추경』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애타게 불러왔다는 사실은 위서 논쟁과는 상관없는 ‘실재’ 역사이다. 거기에 덧붙여,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인간 세상에 직접 탄강하여 인간들과 호흡하면서 인간들을 해원시켜주고 인간들의 겁액을 풀어주는 존재라는 사실, 당신께서 직접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주관하며 누구든 일심(一心)을 갖기만 하면 다 베풀어주리라고 선언하셨다는 사실, 심지어 당신을 부르기만 해도 다 살아나리라고 장담하셨다는 사실,⁶²⁾ 그리고 많은 증산종단들이 출현했지만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을 최고신으로 설정하신 분은 오직 도주한 분뿐이시며 그 분으로부터 종통을 이어받은 유일무이한 종단이 대순진리회라는 사실까지 모두 포개어 불빛에 투영시켜보면,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신위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에는 한·중 민초들의 천 년 묵은 뜨겁고 애타는 염원, 그리고 이제 최고신이 그것을 풀어주고야 말리라는 응답과 약속이 뭉쳐있음을 알게 된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라는 신격 명칭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해원의 이미지를 깊이 담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은 뒤에서 다루겠지만 최고신이 해원신(解冤神)이라는 사실과도 서로 통한다.

2. 삼청진왕(三淸眞王), 옥청진왕(玉淸眞王)

대순진리회의 최고신 명칭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옥추경』

62) 『전경』, 교법 1장 6절, 교법 1장 16절, 교법 2장 4절, 교법 3장 35절, 예시41절.

에 있는 신격이지만 사실상 그 연원은 한국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같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으니, 삼청(三清) 개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원래 『옥추경』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신격은 도교의 삼청(三清) 관념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무극도 시절 사용되었던 주문 중 하나인 오방주(五方呪)에도 역시 삼청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五方呪

謹請東方工曹太冲天罡青帝將軍南方太乙勝光小吉赤帝將軍西方傳送從魁河魁白帝將軍北方登明神后大吉黑帝將軍中央黃帝將軍降我局所侍吾主人太一聖哲吾奉三清眞王噫噫如律令⁶³⁾

오방주의 말미에 있는 ‘侍吾主人太一聖哲吾奉三清眞王噫噫如律令(나의 주인이신 태일의 성철, 내가 받드는 삼청진왕을 모시오니 칙령을 속히 시행해주시오)’에서의 태일성철(太一聖哲)과 삼청진왕(三清眞王)은 도교적 지평에서 조망할 수 있는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또 다른 표현들이다. 특히 태일성철은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 천문의 맥락에서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용어인데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삼청을 다스리는 최고신인 삼청진왕에 대해 집중한다.

중국도교에 따르면, 시초에 무(無)가 있었고 그것이 세상에 나타나 묘일(妙一)이 되었으며, 묘일은 삼원(三元)으로 나뉘어져 삼기(三氣)가 형성되고 이로부터 만물이 생겨났다고 한다. 삼원 중 하나인 혼동태무원(混洞太無元)에서는 천보군(天寶君)이, 적혼태무원(赤混太無元)에서는 영보군(靈寶君)이, 명적현통원(冥寂玄通元)에서는 신보군(神寶君)이 각각 화생(化生)하는데, 이들 삼군(三君)이 거주하는 곳이 옥청(玉淸: 천보군이 있는 淸微天)·상청(上淸: 영보군이 있는 禹余天)·태청(太淸: 신보군이 있는 大赤天)인 삼청(三清)이다.⁶⁴⁾ 옥청의 천보군(원시천존)은 천지만물이 생겨나기 이전

63) 같은 책, 교운 2장 42절.

의 무극을, 상청의 영보군(영보천존)은 태극을, 태청의 신보군(도덕천존)은 음양 양의(兩儀)를 각각 상징한다.⁶⁵⁾ 현재 중국도교의 도관에 있는 삼청전(三清殿)이나 삼청각(三清閣), 삼청궁(三清宮)은 이 세 신을 봉안한 곳인데, 이 삼청의 존신들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도교의 삼청존신(三清尊神)

三元	혼동태무원(混洞太無元)	적혼태무원(赤混太無元)	명적현통원(冥寂玄通元)
三清	옥청(玉清)	상청(上清)	태청(太清)
三清天	청미천(清微天)	우여천(禹余天)	대적천(大赤天)
尊神	천보군(天寶君) = 옥청대제(玉清大帝) = 원시천존(元始天尊)	영보군(靈寶君) = 상청대제(上清大帝) = 영보천존(靈寶天尊) = 태상도덕군(太上道德君)	신보군(神寶君) = 태청대제(太清大帝) = 도덕천존(道德天尊) = 태상노군(太上老君)
상징	무극	태극	음양 양의

원시천존은 어떤 바탕이나 조상도 없이 홀로 만물의 시초가 된 최고신으로서, 허무(虛無)와 무극이라는 우주의 근원을 상징하는 존재이다.⁶⁶⁾ 도교에서 최고신은 셋이지만 그 근본은 원시천존으로 같다고 한다.⁶⁷⁾ 그럼에도 굳이 최고신을 셋으로 나누는 것은 불교의 삼신불(三身佛)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⁶⁸⁾ 원래 중국도교에는 동이계 문화의 영향으로 태일이 최고신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었지만 천구 북극의 변화로 태일의 위상이 흔들리게 되었다.(다음 절 참조) 그때 남조 양(梁)나라의 저명한 도사 도

64) 구보 노리파다, 『도교사』, 최준식 옮김 (칠곡: 분도출판사, 2000), pp.38-39.

65) 진기환, 앞의 책, p.19.

66) 원시(元始)라는 명칭도 어떤 바탕이나 조상이 없이 홀로 만물의 시초가 되었기에 붙여진 것이다. 김일권, 「도교의 우주론과 지고신 관념의 교섭 연구」, 『종교연구』 18 (1999), p.215.

67) 구보 노리파다, 『도교사』, pp.38-39.

68) 김일권,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pp.80-82; 구보 노리파다, 『도교사』, p.39; 진기환, 앞의 책, p.13.

홍경(陶弘景, 456~536)이 『진령위업도(眞靈位業圖)』로써 700이 넘는 잡다한 도교 신들의 계보를 정리하면서 신들을 7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제1계의 한 가운데에 원시천존을 두었다.⁶⁹⁾ 이로부터 태일 대신 원시천존이 도교의 최고신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⁷⁰⁾ 하지만 이때 도홍경이 최고신을 삼청 개념으로 정립하지는 않았다.⁷¹⁾ 그러다가 당송을 거치면서 중국에 불교의 세력이 크게 발흥하자 이에 자극받은 도교가 불교에 대항하기 위해 영성한 교리를 학문적으로 다듬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최고신을 불교 삼신불에 빗대어 무극과 태극, 음양의 셋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었다.

삼청 존신 관념은 이렇게 생겨났는데, 문제는 옥청대제 즉 원시천존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영보천존과 도덕천존의 위상이 원시천존의 그것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는 것에 있었다.

영보천존은 원래 관이 들어갈 무덤 속에 숨어있는 잡귀를 쫓던 방상씨(方相氏)로서 송나라 때 두 번째 최고신으로 추대된 신이었다.⁷²⁾ 또는 영보천존이 특정한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단·외단 등의 도교 수행이나 여러 도교 의례들을 포섭하기 위해 만들어낸 인위적인 가공의 신격이라는 설도 있다.⁷³⁾

도덕천존은 노자를 말한다. 전국시대에 황로학이 유행하면서부터 노자 숭배 전통이 있었고, 『노자상이주(老子想爾注)』를 주요 경전으로 삼던 오두미도, 그리고 갈홍과 구검지를 거치면서 노자는 도교의 개조(開祖)로서 그 지위를 확고히 다졌으나 원시천존과 필적할 만한 존재까지는 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나라가 개국하면서 노자는 순식간에 최고신의 지위를 얻게 된다. 남만주에서

69) 구보 노리따다, 『도교사』, pp.206-207.

70) 김일권, 「도교의 우주론과 지고신 관념의 교섭 연구」, p.211, p.215.

71) 김일권,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p.81.

72) 방상씨가 최고신인 영보천존으로 급격히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된 이유와 과정은 확실하지 않다. 진기환, 앞의 책, pp.15-16.

73) 김일권, 「도교의 우주론과 지고신 관념의 교섭 연구」, p.221.

몽골에 걸친 유목민 집단인 선비족 출신이었던 당나라의 황제들은 출신 배경을 극복하고 대륙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홍경의 제자 왕원지(王遠知, 509?~635)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선조가 노자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노자를 최고신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⁷⁴⁾ 그러니까 노자가 원시천존과 동격인 도덕천존으로 격상된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방상씨였다거나 혹은 존재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영보천존, 그리고 노자라는 도덕천존이 원시천존과 그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특히 노자를 최고신으로 올린 데 대해 주자가 ‘이처럼 심한 패역(悖逆)을 본 일이 없다’고 악평을 가한 것은 그 한 예이다.⁷⁵⁾ 외부의 공격에 직면한 도교는 이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다시 제시해야만 했는데, 결국 삼청 존신들의 관계는 노자의 스승이 영보천존이며, 영보천존의 스승이 원시천존이라는 식의 종적인 형태로 재설정되기에 이른다.⁷⁶⁾ 이것은 중국도교가 그들의 표면적인 주장과는 달리, 사실상 삼청의 존신들은 동등한 관계가 아님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나름의 신학적 정립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도교에서 삼청 존신의 개념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진경』의 오방주에 등장하는 삼청진왕은 셋으로 나뉜 중국도교의 삼청진왕 관념과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대순진리회는 방상씨나 노자를 최고신으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방주의 삼청진왕은 삼청의 세 존신들을 모두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삼청의 근본인 원시천존 한 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듯하다.

중국도교에서 원시천존의 또 다른 명호는 옥청대제이다. 이와

74) 구보 노리따다, 『도교사』, pp.220-226.

75) 진기환, 앞의 책, p.19.

76) 김일권,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p.83.

유사한 표현이 『전경』에 발견되니, 그것은 무극도 당시에 사용되었던 주문 중 구령삼정주의 ‘吾奉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玉清真王律令(내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즉 옥청진왕의 율령을 받습니다)’에 보이는 ‘옥청진왕’이다.⁷⁷⁾ 옥청진왕은 옥청대제와 동일한 신격으로 생각된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 선(仙) 전통에서 구천의 주재자와 옥청진왕을 동일한 존재로 이해해왔던 흔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뇌공검(雷功劍: 48검)을 연마할 때 번개가 치는 날에 번개의 기운을 몸에 받는 수련을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주문이 구령삼정주의 일부와 유사한 형태인 ‘구천응원뇌성변화천상옥청진옥율령(九天應元雷聲變化天象玉清真玉律令)’이었다.⁷⁸⁾ 여기에서 옥청진‘옥(玉)’은 옥청진‘왕(王)’의 잘못된 표기로 보인다. 어쨌든 이 주문에서 구천의 주재자와 옥청진왕이 동일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쯤에서 중국도교와 대순진리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옥청진왕, 원시천존의 관계를 정리해본다. 현재 중국도교의 공식 입장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 삼청 존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삼청 이외의 모든 신들을 감독한다고 함으로써,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과 삼청 존신들은 별도의 존재인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다.⁷⁹⁾ 또 원시천존은 삼청의 근본이면서도 삼청 존신 가운데 하나인 옥청진왕과는 동일한 존재로 이해한다.

중국도교의 일부에 해당하는 『옥추경』의 설명은 이와 조금 다르다.

“부러워원시천존으로부터 아홉 아들이 나섰고, 옥청진왕은 뇌성보화천존으로 화생하셨다 ... 높은 곳에 계시는 옥청께서는 뇌부를 다스리시니 모든 신이 의복을 갖추어 진왕께 예를 올린다.”⁸⁰⁾

77) 『전경』, 교운 2장 42절.

78) 한병철·한병기, 『칼과 역사와 무예』 (서울: 학민사, 2000), p.242.

79) 『道敎の本』, p.67; 마노 다카야, 앞의 책, pp.218~219.

“오랜 세월 동안 一氣에서 나뉘어 응원의 몸이신 옥청진왕이 되셨다.”⁸¹⁾

“뇌성보화천존께서 말씀하시기를 … 일찍이 대라원시천존 앞에서 청정한 마음으로 큰 소원을 품었으니….”⁸²⁾

즉 『옥추경』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옥청진왕과 동일하고 원시천존과는 다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순진리회는 전술했듯이 이 세 분을 최고신의 동일한 표현들로 간주하고 있다. 이상을 서로 비교하여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원시천존과 옥청진왕,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의 관계

중국도교의 대표 입장	원시천존 = 옥청진왕 ≠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옥추경』의 입장 (일부 중국도교의 입장)	원시천존 ≠ 옥청진왕 =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대순진리회의 입장	원시천존 = 옥청진왕 =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표 2>에서 대순진리회는 『옥추경』의 주신 명칭을 최고신의 신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신격의 위상은 『옥추경』의 주신이 갖는 위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중국도교의 공식 입장, 그리고 『옥추경』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우주의 최고신으로 상정하지는 않지만, 대순진리회는 우주의 최고신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교나 『옥추경』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높은 신이지만 최고신으로까지는 이해하지 않았던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상제께서 강세하기 이전에는 감추어진 신으로 존재해왔기 때문에 최고신

80) “自浮黎元始天尊生九子玉清真王化生雷聲普化天尊…高處玉清治雷府萬神朝服禮眞王.” 『玉樞經』, 「在玉清天中章第二」.

81) “劫一氣分眞玉清真王應元之體.” 같은 책, 「雷字章第一」.

82) 같은 책, 「心蓬此道章第五」, “天尊言 … 嘗於大羅元始天尊前以清淨心發廣大願.”

의 본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탓이었지 않나 한다. 중국민간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원시천존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하위신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온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명나라 때 신봉어지(神封於地) 전설을 수집하여 소설로 기록한 『봉신연의(封神演義)』에는, 한족(漢族)의 주나라를 도와 천하를 평정한 강태공이 동이계 은나라의 명장이자 충신인 태사(太師) 문중(聞仲)이 죽은 뒤에 그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으로 봉하고 있다.⁸³⁾ 이때의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원시천존의 명을 직접 받는 토지공(土地公)의 하위 신일 뿐이다.

원래 원시천존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중화계가 아닌 동이계에 연원을 둔 최고신이였다. 원시천존을 셋으로 나누고 이들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분리시키는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최고신 관념을 새로 정립한 것은 중화계의 중국도교였다. 이렇게 보면, 대순진리회는 동이계(부여와 고구려)의 최고신 관념을 올곧이 계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은나라 이후 주나라부터 중국에서는 최고신의 인격성이 서서히 탈각되고 내재적 원리로 변해갔던 역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최고신을 인격적 초월신으로 신앙하는 종교성은 화하민족이 아닌 동이민족의 전통이었던 것이다.

3. 태일(太一), 태일성철(太一聖哲)

앞에서 언급했던 오방주에 최고신의 표현들인 태일성철(太一聖哲)과 삼청진왕이 있었는데, 삼청진왕은 앞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태일성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태일성철은 오방주 외에도 『전경』의 음양경(陰陽經)과 운합주(運合呪), 개벽주(開闢呪)에도 등장한다. 오방주에서 “태일성철이 나의 주인”, 음양경에서 “태일성철이시여, 소원성취하게 하옵소

83) 陸西星, 『封神演義』(臺北: 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 2006), p.1014.

서.”, 혼합주에서 “모든 이치와 법, 모든 정기는 자라서 돌아가 태일성철로 합치되나니, 성철이시여! 죽어서 올라가 우주에 공을 이루니 이로움이 따릅니다.”, 개혁주에서 “나는 주어진 몸으로 대명을 크게 할 것이니 태일성철이시여 항상 같이 하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한 것을 감안하면,⁸⁴⁾ 태일성철은 최고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성철(聖哲)은 성인(聖人)과 철인(哲人)이라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일의 인격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태일은 북극성을 뜻한다. 대순진리회의 최고신 존칭과 관련이 있는 『옥추경』 역시 북극성 경배와 연관된다.⁸⁵⁾ 따라서 상제관 구성 항목 중에서 태일이 알려주는 사실은,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을 설명할 때 북극성을 중심으로 편성되는 천문 우주론의 최고신 관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28수를 담당하는 28장이거나 북두칠성의 칠성대제가 대순진리회의 주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사실 『대순진리회요람』의 ‘응원(應元)이라 함은 모든 천체(天體)뿐만 아니라 삼라만상(森羅萬象)이 다 천명(天命)에 응(應)하지 않고 생성(生成)됨이 없음을 뜻함 이며’라는 서술⁸⁶⁾은 최고신 관념에 천체(天體) 즉 천문 우주론을 포함시켜야 함을 이미 시사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천문 우주론에서 태을(太乙)이라고도 불리는 태일(太一)은 자미원(紫薇垣) 안에서 최고신을 보좌하는 신하별로서 병란과 재앙, 생사를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원래는 전국 시대에서 태극과 같이 천지만물의 본원(本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이다가, 한대(漢代)부터 우주의 근본 원리이자 동시에 천문의 중심인 북극성의 신격으로서 못별과 만물을 통어(通御)하는 최고

84) 『진경』, 교운 2장 42, “神明神明 天地諸神明 下鑑垂察 奉命身 太一聖哲所願成就,” “諸道度諸精氣 茁茁歸合太一聖哲 茁茁歸合太一聖哲 茁茁歸茁茁歸合太一聖哲 聖哲崩騰續宇周隨利隨”, “我奉命身大運大命太一聖哲常隨不離”

85) 주명준 외, 『한국인의 사후세계관』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1), pp.167-168.

86) 『대순진리회요람』, p.7.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어졌다. 중국 최초의 도교집단인 태평도와 오두미도 역시 태일을 최고신으로 신앙하였다.⁸⁷⁾

주지하듯이 밤하늘의 별들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회전운동을 한다. 문제는 지구의 세차운동으로 인하여 천구 북극이 이동하고 북극성도 계속 변해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북극성은 작은곰자리의 α 이지만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12000년 뒤에는 거문고자리의 α 인 직녀성이 북극성이 된다. 도교의 최고신 관념에 천제나 천존의 수가 여럿으로 표현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북극점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천문 우주론으로 정립되는 최고신 관념은 북극성이 핵심인데, 북극성이 변화함에 따라 최고신도 변화하게 된다. 그리하여 한나라 때 북극성이었던 태일도 세차운동으로 인하여 북극성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함과 동시에 최고신 관념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원나라 때는 천추성과 구진대성이 북극점에 접근하자 북극성이 2개라 하여 천제를 둘로 봐야 하는 황당한 사태마저 벌어진 일이 있었다.⁸⁸⁾ 현재의 천문 우주론에서 태일이 최고신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신하별로 규정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태일신앙은 중국 옥황상제신앙의 모태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재서와 안동준에 따르면 태일신앙 역시 동이계 은나라의 상제신앙을 계승한 것으로 부여와 고구려의 고대 신앙에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⁸⁹⁾ 특히 태일을 보좌하는 측근 신들은 청룡·백호·주작·현무라는 사신(四神)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고구려의 고분 벽화에서 집중적으로 발굴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신은 원래 전국시대에 형성된 중국 한족

87) 이능화, 앞의 책, p.61; 김일권,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pp.63-64, pp.70-71; 김일권, 「도교의 우주론과 지고신 관념의 교섭 연구」, p.209; 안동준, 앞의 글, p.17; 김지현, 「일자와 천제: 태일의 심볼리즘」, 『종교문화비평』 7 (2005) 참조.

88) 김일권, 「북극성의 위치변화 및 한대의 천문우주론」, 『도교문화연구』 13 (1999) 참조.

89) 안동준, 앞의 글, pp.20-22, p.32; 정재서, 『이야기 동양신화』, p.132.

(漢族) 종교문화의 하나라고 하지만,⁹⁰⁾ 그 유적이 중국이 아닌 한국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⁹¹⁾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사신이 태일을 보좌한다는 신앙은 잊혀진 게 아니라 대순진리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것은 앞서 인용한 오방주에 동서남북을 지키는 신들의 명호가 사신을 나타내는 청제·적제·백제·흑제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데서 알 수 있다. 대순진리회에서 매일 대원중(大願鍾)을 타중하면서 읽혀지는 종운(鐘韻)에도 역시 그러한 이름들이 보인다.

“중성명혜(鍾聲鳴兮)여 우주경응(宇宙警應)이로다. ...
 북현무 흑제장군 내대지위(北玄武 黑帝將軍 來待之位)
 동청룡 청제장군 내대지위(東靑龍 靑帝將軍 來待之位)
 남주작 적제장군 내대지위(南朱雀 赤帝將軍 來待之位)
 서백호 백제장군 내대지위(西白虎 白帝將軍 來待之位)
 중앙구진 황제장군 내대지위(中央句陳 黃帝將軍 來待之位)
 ...”⁹²⁾

오방주와 종운에 나타나는 것은 동서남북의 사신에 중앙까지 포함된 오방신이다. 오방신은 상제의 명을 받아 천하의 호구(戶口)를 조사하는 천지공사에 등장하기 때문에,⁹³⁾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직접적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신들로 이해된다. 고대 동이계를 계승한 부여·고구려의 신앙, 즉 최고신인 태일을 사신들이 보좌한다는 믿음이 현재 대순진리회에서는 오방신이 그러한 임무를 띠는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90) 사신 관념의 형성에 대해서는 이성구, 「四神의 形成과 玄武의 起源」, 『중국고증세사연구』 19 (2008) 참조.

91)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서울: 민속원, 2003), p.46, p.51, p.53.

92) 『대순회보』 3 (1985), p.1.

93) 『전경』, 행록 4장 39절.

4. 무극신(無極神), 태극지천존(太極之天尊)

도교에서는 우주의 본체이자 본원(本源)을 무극이라고 한다. 대순진리회에서 사용하는 주문들 가운데 하나인 봉축주(奉祝呪)에는 무극신(無極神)이 등장하는데,⁹⁴⁾ 이 신격은 최고신을 의미한다. 무극신은 무극과 같은 신, 무극을 속성으로 하는 신, 무극을 주재 통솔하는 신 등 다양한 각도에서 읽힐 수 있다. 『위서(魏書)』 「석노지(釋老志)」에도 도교의 최고신이 무극지존(無極之尊)으로 표현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⁹⁵⁾

무극이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원이라면,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우주의 근원은 태극이다. 무극과 태극이 서로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하는 문제는 도가와 유가의 자존심이 걸린 것으로서, 80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논쟁이다. 대순진리회는 ‘대순(大巡)이 원(圓)이며 원(圓)이 무극(無極)이고 무극이 태극(太極)이라’고 하여⁹⁶⁾ 무극과 태극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⁹⁷⁾ 따라서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태극을 통솔 주재하는 존재 [太極之天尊]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것은 대순진리회의 전신인 태극도 시절, 도주께서 1956년에 발행토록 하신 『태극도통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라고 이르는 도는 정해지면 무극이요 움직이면 태극이니, 태극은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을, 사상은 팔괘(八卦)를 낳는다. 태극의 이치가 낳고 살리는 법은 다함이 없고 한량이 없으며 변하고 통하며 조화하는 공덕을 가히 측량할 수 없도다. 오직 우리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께서는 **태극을 관령 주재하시는 천존[太極之天尊]**이시다.”⁹⁸⁾

94) 봉축주는 다음과 같다. “無極神 大道德 奉天命 奉神教 道門小子 所願成就케 하옵소서.” 무극신이라는 용어는 『전경』 예시 88절에도 보인다.

95) 『魏書』 「釋老志」, p.3052, “最高者無極之尊, 次曰大至眞尊, 次天覆地載陰陽眞尊.”

96) 『대순회보』 38 (1993), p.2.

97)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대순회보』 94 (2009), pp.95-111 참조.

이와 달리 무극을 주관하는 존재와 태극을 주관하는 존재를 다르게 규정하는 사례가 있다.⁹⁹⁾ 구천상제를 무극주로, 도주 옥황상제를 태극주로 간주하는 입장은 무극과 태극을 다른 것으로 보는 시각에 기인한다. 이 주장은 도주께서 생전에 증산께서는 무극주요, 당신께서는 태극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데 그 근거를 두고 있지만, 원로 임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도주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없다고 한다. 앞서 인용한 『태극도통감』에는 구천상제께서 태극을 주재하시는 천존[太極之天尊]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이 기록은 도주 재세 시절이던 1956년에 발행된 것이니 만큼, 도주께서는 구천상제께서 무극·태극을 주재하는 분이심을 천명하셨다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입장은 도주의 뒤를 이어 도전께서 태극도를 이끄시던 1960년대 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그 유력한 증거가 1966년에 발행된 『태극도 안내서』의 다음 내용이다.

“우리는 **태극(太極)의 주재(主宰)이신 구천상제(九天上帝)**께서 섭리(攝理)하신 바 무극대도(無極大道)의 전무후무(前無後無)하고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법통(法統)을 계승신본(繼承信奉)하며 그 계시(啓示)하신 바 태극진법(太極眞法)의 무궁무진(無窮無盡)하고 지오지밀(至奧至密)한 설법(說法)을 닦고 깨달아서 ...”¹⁰⁰⁾

이 자료에도 구천상제께서 태극을 주재하시는 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천상제께서는 무극주요, 도주이신 옥황상제께서 태극주라는 서술의 출처는 1980년대 말엽부터 1990년대 초엽 사이에 발간된

98) 『태극도통감』(태극도본부, 1956), p.5, “道之謂道也者는 定而無極하고 動而太極하여 太極이 生兩儀하고 兩儀生四象하고 四象生八卦하나니 太極之理生生之數는 無盡無量하여 變通造化功德을 不可思議일새 惟我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管領主宰 太極之天尊이시라.”

99)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二)」, pp.638-639.

100) 『태극도 안내서』(태극도본부 교화부, 1966), p.9.

『진경』(「무극진경」과 「태극진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과 『도학원론』이다.¹⁰¹⁾ 이러한 서적들은 도전께서 태극도장에서 출궁하시고¹⁰²⁾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태극도장에 남았던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도주 재세 시절,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도전께서 태극도를 이끌고 계셨던 시절에는 구천상제께서 무극·태극을 주재하는 분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도전께서 태극도장을 출궁하신 이후 남은 사람들이 교리를 새로 정리하면서 최고신의 개념을 변경시켰던 것임을 알 수 있다.¹⁰³⁾

무극신이자 태극지천존이 만물과 관계를 가지는 방식은 어떠한가? 그 답은 증산께서 생장염장(生長斂藏)의 사의(四義)를 사용하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조화(造化)로써 만물을 다스린다거나,¹⁰⁴⁾ 우주가 운행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천지의 도수(度數)를 주관한다고 하셨던 사실¹⁰⁵⁾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선 『태극도통감』의 인용문에 근거하면, 무극과 태극으로부터 양의와 사상, 팔괘가 순서대로 전개되고 이로부터 만물이 생성된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극·태극이라는 우주의 본체로부터 만물이 자연적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다. 무극·태극인 우주 본체를 관령 주재하는 무극신·태극지천존이 무위이화라는 방식, 즉 생장염장을 탑재한 우주 법칙인 천지의 도수를 통솔함으로써 만물을 생성·성장·소멸시킨다. 이것이 대순진리회의 우주관이다.

대체로 무속의 우주관은 우주가 존재 본원(本源)인 카오스에서 ‘저절로’ 열려 시간과 공간이 생기고 우주 질서가 확립되고 나면 그 연후에 신이 나타나 그 질서를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다.¹⁰⁶⁾ 『

101) 『진경』(태극도 출판부, 1989), p.315, p.491, p.506, p.507, p.590; 『도학원론』(태극도편찬원, 1992), pp.151-152.

102) 도전께서 태극도장을 출궁하시게 된 과정은 차선근, 「종단 대순진리회의 변천 과정과 무극 태극의 관계」, pp.88-91 참조.

103) 「대순진리회와 감천 태극도장의 사상 비교-우주론을 중심으로」, 『대순회보』 109 (2010) 참조.

104) 『진경』, 교법 3장 27절.

105) 같은 책, 공사 1장 2절, 공사 1장 3절.

106) 김태곤, 『한국무속연구』(서울: 집문당, 1995), p.299.

주역』에 근간하는 성리학의 우주관은 이기론(理氣論) 즉 기(氣)의 집산(集散)에 의해 만물이 생성·소멸하며 그 존재와 운행 법칙은 리(理)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이다. 최고신이 우주의 법칙(도수, 규범)보다 상위 존재라는 대순진리회의 우주관은 종교성이 한층 강화되어 있는 것이며, 자연발생적 또는 철학 사변적 입장에서 있는 무속이나 성리학의 우주관과는 다르다.

정리하자면 무극신·태극지천존은 무극·태극을 본질로 하는 최고신이 생장염장이라는 무위이화에 바탕한 천지의 도수를 주관하며, 음양의 결합인 뇌성(전기)으로써 오행과 만물을 생성·변화·발전시켜 나감을 일컫는 표현이다.¹⁰⁷⁾ 따라서 이 표현들은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 창조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Ⅲ. 인신강세의 지평에서 본 최고신 표현들과 그 의미

대순진리회 최고신에게 나타나는 최대의 특징이 인신강세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최고신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은 모두 인신강세라는 틀 속에서 살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앞 장에서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몇몇 표현들을 도교의 지평에서 들여다보았던 것은 도교와의 연관성을 서술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제 대순진리회 최고신을 표현하는 나머지 용어들인 구천대원조화주신, 구천상세군, 천주, 개벽장, 해원신을 인신강세의 지평에서 하나씩 살펴기로 한다. 이 표현들이 인신강세 관념과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또 어떻게 서술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최고신의 인신강세에 대한 설명과 이해 방식부터 짚어보자.

107) 차선근, 「정역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연구-우주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 (2010), pp.45-49.

1. 인신강세사상(人身降世思想),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글의 서두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최고신의 인신강세를 기독교의 성육신이나 불교의 권화사상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성육신 신앙이란 ‘유일신’ 하나님이 ‘원죄’를 지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초로 인간으로 온 모습이 예수라는 사실, 그렇게 때문에 예수에게는 ‘원죄’가 없어야 하므로 보통 인간과는 달리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것(처녀생식)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즉 성육신은 유일신, 원죄, 구원, 처녀생식을 주요 키워드로 한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바로 이 지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내용들은 대순진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 우선 대순진리회는 ‘유일신’ 신앙이 다른 신명들을 소홀히 대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¹⁰⁸⁾ 아울러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원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입장이지만 대순진리회는 인간의 잘못과 허욕(虛慾)을 인정하면서도 그 배경인 상극에 치우진 천지의 잘못된 구조적 질서를 크게 부각시킨다.¹⁰⁹⁾ 기독교의 ‘구원’ 역시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타력적 성격을 띠지만, 대순진리회의 구원은 타력적이면서도 동시에 자력적 성격 또한 갖추고 있다.¹¹⁰⁾ 증산의 탄강에는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내려오는 징표는 있지만, 처녀생식이라는 관념은 나타나지 않는다.¹¹¹⁾ 이처럼 성육신의 핵심 요소인 ‘유일신’, ‘원죄’, ‘구원’, ‘처녀생식’ 관념이 대순진리회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성육신으로 대순진리회의 상제를 설명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것이 된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성육신 사상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

108) 『전경』, 교법 1장 66절,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

109) 차선근,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解冤結果 대순진리회의 解冤相生 비교연구」, pp.97-99 참조.

110) 이항녕, 「대순사상의 우주사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1 (1996), p.24; 이항녕,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p.20.

111) 『전경』, 행록 1장 9절.

간으로 내려왔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세부 내용이 대순진리회와는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인신강세를 설명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¹¹²⁾

또 권화사상이란 인도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신이 환력(幻力, māyā)으로 인간계에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법화경』의 권화사상 역시 이러한 개념으로,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때그때 각 상황에 따라 32응신(應身)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여러 성현(聖賢)은 근원적으로 동일한 절대자의 다양한 화현(化顯)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을 지니고 있는 권화사상의 핵심은 첫째, 신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몸을 나투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증산이라는 한 인간으로 출생하여 성장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삶을 살았던 존재이지, 갑자기 어떤 자리에 모습을 드러내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권화사상과 그 맥락이 같지 않다. 권화사상의 둘째 핵심은 동일한 절대자가 그간 다양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속 역사에 출현해왔다는 것이다. 물론 여주본부도장의 포정문(布正門)에는 이것을 연상시키는 글귀가 새겨져 있기는 하다.

“이 태극(太極)이야말로 지리(至理)의 소이재(所以載)요, 지기(至氣)의 소유행(所由行)이며 지도(至道)의 소자출(所自出)이라. … 그러나 그 기동작용(機動作用)의 묘리(妙理)는 지극(至極)히 오밀현묘(澳密玄妙)하며 무궁무진(無窮無盡)하며 무간무식(無間無息)해야 가(可)히 측도(測度)치 못하며 가(可)히 상상(想像)치 못할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성(靈聖)한 분으로서 … 창생(蒼生)을 광제(廣濟)하시는 분이 수천백년(數千百年)만에 일차식내세(一次式來世)하시나니 예컨대 제왕(帝王)으로서 내세(來世)하신 분은 복희단군문왕(伏羲檀君文王)이시요 사도(師道)로서 내세(來世)하신 분은 공자(孔子)·석가(釋迦)·노자(老子)이시며 근세(近世)의 우리 강증산성사

112)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연구-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pp.225-226.

(姜甌山聖師)이다. 오직 우리 성사(聖師)께서는 구천대원조 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지기(至氣)를 초차 인계(人界)에 하강(下降)하사 삼계(三界)를 대순(大巡)하시여 대공사(大公事)를 설정(設定)하시고 … 다시 대염원(大念願)을 세우사 해탈초신(解脫超身)으로 상계(上界)에 왕주(往住)하사 보화천존제위(普化天尊帝位)에 임어(臨御)하셔서 … ”¹¹³⁾

여기에 따르면 증산께서는 복희, 단군, 문왕, 공자, 석가, 노자와 같이 수천 백 년마다 인간계에 내려오는 스승[聖師]이라고 한다. 하지만 증산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이시고 보화천존의 제위에 임어하셨다는 점에서, 복희나 단군 등과 같은 여타 성현(聖賢)들과는 다른 존재로 설명된다. 다시 말해서 성현들이 중생을 제도할 사명을 띠고 한 번씩 인간계에 내려왔지만 그것은 최고신이 모습을 계속 바꾸면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증산의 탄강은 이러한 성현들의 내방이 아니라 최고신의 ‘최초’ 강림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종종 있어왔던 일이 아닌 미증유의 일이기 때문에 권화사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¹⁴⁾

성육신이나 권화사상은 각각 기독교, 불교의 신학에 등장하는 개념이다. 각 종교의 신학들은 그들의 다양한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해내기 위한 목적 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내용으로 통일될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각 종교 신학의 이론들을 하나로 포괄해내는 메타이론이란 가능한 것이 아니다. 각 종교의 신학은 그들 각자의 신앙을 설명하는 데에만 유용할 뿐이며, 한 종교의 신앙을 다른 종교의 신학을 이용하여 설명하려 드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대순진리회 최고신 관념이나 신앙을 기독교나 불교의 신학에 의탁하여 설명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인신강제 관념은 분명히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고유성을 담고 있는 종학(신학) 사상이다. 대순진리회가 타 종교에 종속되지 않고

113) 『대순회보』 38, p.2.

114)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연구-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p.207.

뛰어난 독창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인신강세사상(人身降世思想)’의 내용은 타 종교의 신학들과는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서술되고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의 『전경』 구절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서양인 이마두(利瑪竇: 마테오 리치)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겹얹을 구원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辛未)년에 강세하였노라.”¹¹⁵⁾

이것을 토대로 인신강세사상의 뼈대를 다음과 같이 세워볼 수 있다. 하나, 원래 최고신은 무극과 태극, 우주의 운행 법칙 전반을 총괄하되, 그 세부적인 다스림은 각 영역에 배정된 천지신명들(주로 기능신)에게 일임했다.

둘, 천지신명들은 우주의 지배 원리이던 ‘상극’이 너무 지나치게

115) 『전경』, 교운 1장 9절.

집행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원(冤)이 발생되었으며, 그 원들은 풀리지 못한 채 계속 누적되어 결국 우주의 운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이마두 이후 인세에 베풀어진 천국문물이 인간의 오만을 부추기고 상도(常道)를 무너뜨리자 세상은 더욱 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셋, 이로써 천지신명들이 더 이상 통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자 최고신이 직접 나서줄 것을 하소연하였다. 최고신은 어찌 할 수 없이 삼계를 직접 도맡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넷, 최고신은 천하를 대순하다가 먼저 최수운에게 계시를 내림으로써 인간에게 제세대도를 열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부득불 직접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다섯, 중생을 제도할 목적으로 몇몇 성현들이 시대에 따라 계속 강세하여 왔지만, 최고신의 강세는 증산의 탄강이 처음이었다.

여섯, 최고신은 인신강세한 후 천지를 조정하는 대공사를 처결하셨다. 천지공사는 천지의 주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천지공사를 마친 증산께서는 화천하시고 계시로써 종통을 도주께 전하셨다.

이러한 서술은 인신강세사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점일 뿐이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학술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풍성해져 대순진리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 구천상세군(九天上世君)

이제 이러한 인신강세사상의 지평에서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들을 살펴보자.

먼저 『대순진리회요람』에 따르면, 증산께서 인간으로 강세하기 이전에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이었다고 한다.¹¹⁶⁾

116) 『대순진리회요람』, p.10. “강증산(姜甌山) 성사(聖師)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원시(原始)의 모든 신성(神聖)·불(佛)·보살(菩薩)들의 호소(呼訴)와 청원(請願)으로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이 존칭은 ‘구천(九天)에 계시는 가장 으뜸이며 근본이 되는[大元] 조화주 하느님[造化主神]’이라는 의미이다.¹¹⁷⁾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는 무극도 시절 쓰인 주문 중 하나인 개벽주(開闢呪)의 ‘進退有法吾奉九天上世君勅速勅速唵口急口急如律令(나아가고 물러가는 법이 있어 내가 구천상세군을 받드니, 칙령을 속히 시행해주십시오)’에 보이는 ‘구천상세군(九天上世君)’을 들 수 있다.¹¹⁸⁾ 이 존칭은 구천(九天)이라는 최고의 하늘에 거주하시는[上世] 임금[君]이라는 의미이다. 구천대원조화주신과 구천상세군은 과거 종교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존칭들이며, 구천이라는 특정 공간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표현들 역시 최고신의 ‘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신격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현재, 즉 대순진리회 최고신이 인신강세하고 다시 천상에 복귀한 이후에도 최고신은 여전히 구천의 최고 통수자라는 점에서, 최고신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이시지만 구천대원조화주신이시며 구천상세군이시기도 하다. 그렇다면 구천대원조화주신(또는 구천상세군)이라는 표현을 상제관을 구성하는 기초 항목 가운데 하나로 넣음으로써 독해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의 성격을 파악할 때 ‘멀리 있는 신, 감추어진 신(deus otiosus)’ 관점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 민속학자인 앤드류 랑(Andrew Lang, 1844~1912)이 가장 원시적인 종족에게조차도 불멸성과 도덕성, 창조주로서의 성격을 갖춘 최고신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이후로, 모든 민족은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신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¹¹⁹⁾ 그 예는 중동지역의 야훼나 알라, 그리스의 제우스, 북유럽의 오딘, 인도의 브라흐마, 몽골의 탕그리(Tangri), 뉴질랜드의 이호(Iho), 아프리카의 우월로우(Uwoluwu)나 올로룬(Olorun),

내려오시다.”

117) 최동희·이경원, 앞의 책, pp.159-160.

118) 『전경』, 교운 2장 42절.

119) 에릭 샤프, 『종교학-그 연구의 역사』, 윤이흠·윤원철 옮김 (서울: 한울, 2007), pp.88-91.

눔(Num), 북미의 와칸탕카(Wakan Tanka)나 기네첸(Ginechen), 나피(Napi), 도크위부치(Dohkwibuhch) 등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세계종교사에 나타나는 이런 최고신들은 인간들이 직접 접촉하거나 감지할 수 없고 자연의 변화 등을 통하여 추측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흔히 ‘감추어진 신’으로 불린다. 대개 감추어진 신은 만물과 인간을 만들었으나 그 이후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고, 우주 각 지역을 통치하는 권능을 비나 바람, 산과 바다 등을 담당하는 기능신들에게 나누어 내어주고 뒤로 물러나 앉아있는 것으로 이해된다.¹²⁰⁾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인 상제께서는 원래 구천에 계신 분이셨고, 신성·불·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였으며,¹²¹⁾ 그에 따라 상제께서는 괴롭기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삼계대권을 맡아 삼계를 대순하고 인세에 하강하여 천지를 바로 잡게 되었다고 한다.¹²²⁾ 최고신은 천지를 직접 일일이 맡아서 주관하지 않았고 하위 신들이 다스리도록 맡겨두었다는 점, 그 다스림의 효능이 상실되자 직접 천지를 맡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인신강세하여 삼계를 직접 주관하고 천지공사로써 우주의 법도를 바로 잡았다는 점이 알려주는 사실은 ‘감추어진 신’(구천대원조화주신)이 천지신명들의 청원과 인신강세를 계기로 ‘드러나는 신’(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으로 변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류는 바로 여기에서 나타날 위험이 있다.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 인신강세함으로써 직접 인간의 몸으로 드러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다 보면, 자칫 상제께서는 감추어진 신이 아니라는 식의 고정적인 관점에¹²³⁾ 그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래 감추어진 신이었다가 천지신명들의 하소연과 인신강세 이후에 드

120) 율이흠, 『한국종교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pp.167-168; M.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2001), pp.124-126, p.129.

121) 『전경』, 교운 1장 9절, 예시 1절.

122) 같은 책, 공사 1장 9절.

123) 진경애, 앞의 글, pp.189-190.

러나는 신으로 그 속성을 바꾸게 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내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선·후천의 교체기에 대한 설명, 즉 최고신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삼계가 진멸(盡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과정과 이유(이것은 神正論과 관련된다), 천지공사의 필연적 시행에 대한 종합적(신학적) 해명이 가능하며, 또한 ‘어찌할 수 없이 천지공사를 시행하게 된’ 최고신의 인간적 감성 또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감추어졌던’ 신이라는 관점은 중국도교나 민간에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지고(至高)한 신이지만 최고신으로까지는 간주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하나의 중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유용성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구천대원조화주신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동일한 다른 표현이지만, 인신강세를 기점으로 전자는 감추어진 신이라는 면모를, 후자는 드러나는 신이라는 면모를 강조하는 용어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해는 구천대원조화주신이 구천의 조화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명호라는 점, 그리고 그 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명호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명확해진다. 다시 말해서, 구천대원조화주신이라고만 하면 최고신이 어떻게 만물의 조화를 주관하는 것인지 감추어져 있어서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고 하면, 그 성격은 음양이기의 결합인 퇴로써 만물을 다스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화주가 어떻게 만물을 조화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고신의 조화의 내용이 ‘드디어 공개 되었다’는 사실은 감추어진 신이 드러나는 신으로 변모한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감추어진 신이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대순진리회 최고신이 무극신·태극지천존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전술했듯이 증산께서는 인신강세 이전에 감추어진 신이었고, 감추어진 신은 세상사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권능을 하위 기능신들에게 나누어 내어주고 있

었다. 이에 비해 무극신·태극지천존은 생장염장의 법칙을 통솔함으로써 만물을 직접 생성·변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증산께서는 인신강세 이전에는 감추어진 신이었으니 무극신·태극지천존은 아니었던 셈인가?

이에 대한 해답 역시 최고신이 만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인 ‘생장염장의 무위이화’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신강세 이전의 최고신은 우주 운행의 법칙을 총괄하면서 각 영역의 구체적인 세부 다스림은 하부 기능신들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추어진 신이 예전에도 무극신이자 태극지천존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당하게 된다.

3. 천주(天主)

대순진리회 최고신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천주(天主)가 있다. 이 용어 역시 인신강세의 지평에서 조망될 때 그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다. 왜냐하면, 천주는 이미 동학의 최수운이 사용한 바 있는 표현이지만, 그는 최고신의 인신강세의 맥락이 아닌 계시의 맥락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신종교의 첫 장을 연 최수운은 도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1860년 4월 5일 경주 용담정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하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 … 나 역시 공이 없으므로 너를 세상에 내어 이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하니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마라.”¹²⁴⁾는 소리를 듣는 신비경험을 하였으며, ‘상제’라고 하는 신적 존재에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¹²⁵⁾ 여기에서 ‘상제’는 수운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그 신적 존재가 자기 스스로를 밝히면서 한 말이다.(世人謂我上帝) 수운은

124) 『동경대전』, 「포덕문」, “曰勿懼勿恐世人謂我上帝汝不知上帝耶. … 曰余亦無功故生汝世間敎人此法勿疑勿疑.”

125) 윤석산 주해, 『초기동학의 역사 道源記書』 (서울: 신서원, 2000), pp.33-39.

그 신적 존재를 ‘하늘님’ 또는 ‘천주’라고 불렀다.¹²⁶⁾

그런데 증산께서는 수운에게 계시를 내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임을 밝히고¹²⁷⁾ 당신께서 참 동학을 펼치리라고 장담하셨다.¹²⁸⁾ 즉 동학 본주문인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의 천주(天主)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이다. 동학의 천주가 자신이라는 증산의 종교적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려는 게 아니다. 다만 『전경』 곳곳에는 ‘천주’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발견된다는 점¹²⁹⁾, 대순진리회는 동학의 21자 주문 순서를 바꾸어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을 기도주(祈禱呪)로 사용하고 있고¹³⁰⁾ 그때의 ‘천주’는 최고신을 의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천주’를 상제관 구성 항목에 넣어야 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대순진리회의 천주가 동학 본주문의 천주라고 하더라도, 최수운과 증산에 의해 각각 표현된 천주 성격은 다르다. 동학의 천주는 초월적이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최수운은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내적 원리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 천주에 대한 사상적 정립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최수운의 종교 활동이 주로 도피 생활과 겹쳐있었던 데다가 그나마 시간도 무척 짧았기 때문이었을 수 있다. 최수운의 후예들은 초월성을 배제하고 내재성을 더 강조하는 데 주력해왔으며, 그러다보니

126) 표영삼, 『동학(1)-수운의 삶과 생각-』 (서울: 통나무, 2004), pp.110-111;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연구-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p.211.

127) 『전경』, 교운 1장 9절, “월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하다가 이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삼층전 미륵금불에 이르러 30년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세계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헌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미년에 강세하였노라.”

128) 같은 책, 권지 1장 11절.

129) 같은 책, 행록 5장 38절, 공사 3장 41절, 교운 1장 30절, 교운 1장 44절, 교운 1장 66절.

130) 동학에서 강령주문(降靈呪文)은 ‘至氣今至願爲大’이고, 본주문(本呪文)은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이다. 강령주문은 천주의 기운과 수련자의 기운이 서로 융화일체가 되고자 하는 주문이고, 본주문은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러 천주의 무궁한 가르침을 받고 나아가 천주의 덕(德)에 이르고자 하는 주문이다. 강령주문과 본주문을 합쳐 통상 21자 주문이라고 부른다. 윤석산, 『천도교』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6), p.60.

상대적으로 약화된 초월성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내부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현재도 천도교 등 동학 계열의 종교에서 천주 성격 규정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달리 대순진리회의 천주는 내재성을 포괄하면서 초월성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묘사된다.¹³¹⁾ 대순진리회의 천주가 동학의 천주와 동일하다고 하면서도 그 성격 규정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동학의 천주가 최고신이 증산으로 인신강세 하기 이전 인간에게 계시를 내렸던 존재(감추어진 신)이지만, 대순진리회의 천주는 그 계시 이후 최고신이 직접 인신강세하여 삼계를 개벽시키는 천지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신명계로 복귀한 존재(드러나는 신)이기 때문이다.

4. 개벽장(開闢長), 해원신(解冤神)

『전경』에는 개벽장(開闢長)과 해원신(解冤神)이라는 대순진리회 최고신의 또 다른 표현이 보인다. 이 용어들 역시 최고신께서 인신강세를 하여 천지공사를 시행하심으로 해서 생명력을 부여받게 된 표현들이다.

먼저 개벽장부터 살펴보자.

“시속에 말하는 개벽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벽장(開闢長)을 말함이니라.”¹³²⁾

이와 같이 개벽장이란 천지인 삼계의 대권을 가지고 비겁(否劫)에 빠진 신명과 창생을 구제하기 위해 삼계를 새로이 개벽하는 최고신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개벽장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형태이지만, 최고신이 드러나는 신으로서 인간의 현실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신, 인간이 꿈꾸어 온 유토피아를 활

131) 차선근,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연구-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참조.

132) 『전경』, 공사 1장 1절.

짜 열어주는 신이라는 의미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증산께서는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고 하시면서 벽에 글을 써 붙이신 적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해원신’이라는 구절이 보인다.¹³³⁾ 현재 대순진리회의 의례들 가운데 하나인 봉강식(奉降式)을 거행할 때 낭독하는 다음의 봉강문(奉降文)에도 ‘해원신’을 찾아볼 수 있다.

“대강식(大降式)은 생략하옵고 후일을 기하오나 날짜나 기념하기 위하옵서 봉강 중이오니 봉강식으로 현알(見調)올립니다.

금수대도술(禽獸大道術) 천지대팔문(天地大八門) 일월대어명(日月大御命) 인간대적선(人間大積善) 시호시호(時乎時乎) 귀신시호(鬼神時乎) 시구시구 조을시구 대강대강(大降大降) 해원신(解冤神).”

무극도 시절 사용한 옥추통(玉樞統)에는 ‘옥추의 대심판 때는 상제께서 모든 신들을 거느리시고 나와 앉으시니, 좌우에는 칼과 창이 번득이고 앞뒤로는 깃발이 나부끼며 비바람이 크게 일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라는 구절이 있다.¹³⁴⁾ 이것을 해원신이 대강(大降)하기를 기원하는 봉강문과 겹쳐보면, 해원신은 결국 최고신인 구천상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유추해 낼 수 있다.

사실 최고신이 인신강세하여 삼계를 개벽하는 천지공사를 시행할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해원이다.¹³⁵⁾ 상극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들이 풀리지 못하고 천지에 가득 쌓임으로써 결국 만물은 진멸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원을 품게 된 원인을

133) 같은 책, 교운 1장 19절.

134) 같은 책, 교운 2장 42절, “玉樞大判上帝出座萬神學令左右劍戟前後旗幟風雨大作日月晦冥…”

135) 최준식, 「왕중양과 강증산의 삼교합일주의」, 『종교연구』 5 (1989), p.166; 김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 사상」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pp.78-90; 차선근, 「강증산의 대외 인식」, 『동아시아종교문화연구』 2 (2010), pp.131-135.

탐지하는 능력과 그것을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해원은 기대될 수 없다.¹³⁶⁾ 이 점을 고려하면 우주적 규모의 거대한 원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우주적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최고신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해원신이란 원으로 파멸의 위기에 놓인 세상에서 못 존재들의 원을 풀어주려고 직접 나선 최고신을 일컫는 용어라 할 수 있다.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역시 해원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신격 명칭이지만, 해원신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개벽장과 함께 해원신이라는 용어는 이제 최고신이 인간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현이라 하겠다.

위에서 보듯이 개벽장과 해원신이라는 표현은 어떤 특별한 우주적 원리나 법칙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다만 이 표현들은 민초들이 원하는 하느님 상(像), 즉 고통스러운 세상을 빨리 종식시키고 새로운 복된 세상을 가져다주며, 모든 원한을 해소시키고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하느님 관념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벽장과 해원신은 최고신에 대한 여러 표현들 가운데 종교성이 가장 풍부한 용어라고 하겠다.

IV. 달는 글

이 글은 기존 대순진리회 신앙 연구의 경향과 한계를 지적하고, 신앙의 대상인 구천상제에 대한 종학적(신학적) 설명과 이해를 대순진리회 상제관으로 규정한 뒤, 그것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 첫 서설적 작업으로서,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정리하고 그 속에 담긴 내용과 의미들을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136) 장병길, 「해원상생의 본질고」, 『증산사상연구논문집』 5 (1979), pp.68-74.

이 글에서 다룬 대순진리회 최고신 표현들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삼청진왕, 옥청진왕, 태일(태일성철), 무극신, 태극지천존, 구천대원조화주신, 구천상세군, 천주, 개벽장, 해원신까지 모두 열 한 가지이다. 이 가운데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강성상제, 삼청진왕, 옥청진왕, 태일(태일성철), 무극신, 다섯 가지는 도교와의 연관성이 돋보이는 표현들이다. 태극지천존과 구천대원조화주신, 구천상세군 역시 도교와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면, 대순진리회 최고신은 대체로 도교적으로 표현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내용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첫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신격 명칭에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주관하는 최고신은 구천에 거주하신다는 공간적 개념을 통해 그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이것은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최고신인 알라, 야훼가 칠천으로 상징화된다는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신격 명칭은 대순진리회 최고신께서 음양이기(陰陽二氣)를 맡아 다스리는 자연 법칙의 주재자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둘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신격 명칭은 『옥추경』이 이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교로부터 차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신격 명칭의 연원은 동이계인 부여와 고구려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도교에서는 그 신격을 최고신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대순진리회는 최고신으로 사용하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지난 천 년 전후의 기간 동안 한·중 민중들이 겁액과 병마를 물리치고 복을 얻기 위해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을 애타게 불러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감안하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신격에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해원의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대순진리회는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뿐만 아니라 중국도교

에 보이는 삼청진왕도 최고신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국도교는 삼청진왕을 셋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입장인 반면 대순진리회는 삼청진왕을 구천상제 한 분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삼청진왕은 옥청진왕으로도 표현된다.

다섯째,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태일로도 표현된다. 태일은 북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순진리회 상제관을 구성할 때는 천문우주론의 최고신 관념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라는 표현과 함께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이 동이계 부여·고구려의 고대 신앙과 일정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대순진리회 최고신은 우주의 본원인 무극 또는 태극을 관령 주재하는 무극신이자 태극지천존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에 창조주로서의 위상이 있음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일곱째, 구천대원조화주신이 감추어진 신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표현이라면,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은 드러나는 신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현재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이며 동시에 구천대원조화주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을 이해할 때는 감추어진 신이었다가 인신강세 이후 드러나는 신으로 변화하는 전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지녀야 한다.

여덟째, 대순진리회의 최고신은 동학에서 말하는 천주이지만 그 동학의 천주와는 다른 속성을 지닌다. 동학의 천주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팽팽한 긴장 속에 혼재되어 동시에 나타나지만, 대순진리회의 천주는 내재성을 포괄하면서 초월성이 강조된다. 이러한 차이는 동학의 천주가 최고신이 인신강세 하기 이전에 인간에게 계시를 내렸던 존재(감추어진 신)였고, 대순진리회의 천주는 최제우에게 계시를 내린 이후 직접 인신강세를 한 존재(드러나는 신)였기 때문이다.

아홉째, 상제께서는 개벽장이자 만물의 원을 풀어주시는 해원신

이시다. 말세를 맞아 천지신명들의 하소연에 직면한 상제께서는 만물의 모든 원을 풀어주시고(해원신), 상생의 도로써 삼계를 개벽시킨다.(개벽장) 이러한 최고신 표현들은 우주의 원리나 법칙을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민초들이 원하는 하느님 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단순하지만 종교성은 가장 풍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글이 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아직 종료되지 못했다. 상제관 연구 서설을 마치기 위해서는 아직 진법주와 15신위, 특히 양위상제관에 대한 해명이 더 필요하다. 아울러 타 증산교단들의 증산에 대한 설명·이해(증산관)와 비교도 빠질 수 없다. 이것은 필자에게 주어진 다음의 숙제이다.

사실 이 글은 서설적 작업이니 만큼 하나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치밀한 분석에 따른 특별한 소결론을 도출해내지는 못하였고, 다만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논의의 방향을 정하며 그 범주를 넓히는 쪽에 힘을 기울였다. 이제 이러한 서설적 작업이 완료된다고 하면, 본격적인 상제관 연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이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 신격 명칭의 태동과 확산을 추적하는 것, 천문 또는 민간신앙의 흐름을 파악하여 최고신 관념이 형성·전파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정리하는 것, 중국도교 등 세계종교사에 나타나는 최고신 관념들과 비교하는 것, 도교·불교·기독교·이슬람 등 다양한 종교들의 신앙 양상과 비교하는 것, 한국 종교사 또는 세계 종교사의 맥락에서 상제관이 어떤 특성과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는 것, 심성론·수행론·제천의례와 연계하여 상제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술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두는 향후 시간을 두고 계속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인신강세사상을 포함하여 필자가 이 글에서 제기한 서설적 논의들이 밑거름이 되어, 비판적 검토 등 보다 깊은 논의가 진행되어 향후 대순진리회 상제관 연구가 보다 넓혀지고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요람』, 1969.
『대순회보』 3, 1985.
『대순회보』 38, 1993.
『대순회보』 74, 2007.
『대순회보』 94, 2009.
『대순회보』 109, 2010.
『도학원론』, 태극도편찬원, 1992.
『道憲』
『동경대전』
『동문선』 XI, 민족문화추진회, 1982.
『山海經』
『玉樞經』
『魏書』
『전경』, 1974.
『진경』, 태극도 출판부, 1989.
『태극도 안내서』, 태극도본부 교화부, 1966.
『태극도통감』, 태극도본부, 1956.
강돈구, 「대순진리회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62, 2011.
고남식, 「선천 천관과 상제의 초월성」, 『대순사상논총』 8, 1999.
——, 「상제 초월성에 대한 외경십의 양상」, 『대순사상논총』 10, 2000.
구보 노리따다, 『도교사』, 최준식 옮김, 칠곡: 분도출판사, 2000.
——, 『도교의 신과 신선 이야기』, 이정환 옮김, 서울: 뿌리와이파리, 2004.
구중희, 『옥추경 연구』, 서울: 동문선, 2006.
김낙필,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윤리사상」, 『한국도교의 현대적 조

- 명』, 1992.
- _____, 『조선시대의 내단사상』, 서울: 한길사, 2000.
- 김승혜, 「한국인의 하느님 관념」, 『종교신학연구』 8, 1995.
- 김용휘, 「한국 仙道의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 『동양철학연구』 55, 2008.
- 김일권,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 _____, 「도교의 우주론과 지고신 관념의 교섭 연구」, 『종교연구』 18, 1999.
- _____, 「북극성의 위치변화 및 현대의 천문우주론」, 『도교문화연구』 13, 1999.
- 김중서, 「더 넓은 ‘대순사상’의 이해를 향하여」,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 _____, 「동서 종교간 충돌과 현대 한국의 역동적 신앙」, 『종교와 문화』 16, 2009.
- 김지현, 「일자과 천제: 태일의 심볼리즘」, 『종교문화비평』 7, 2005.
- 김 탁, 「증산 강일순의 공사 사상」, 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 논문, 1995.
-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95.
- 김홍철, 「신인조화 사상의 원리와 그 실천이념」, 『대순진리학술논총』 3, 2007.
- _____, 「구천상제를 모시고 받드는 경천·수도」, 『대순진리학술논총』 7, 2010.
- 노길명, 『한국신흥종교연구』, 서울: 경세원, 1996.
- _____, 「대순사상에서의 경천·수도의 의미와 성격」, 『대순진리학술논총』 7, 2010.
- 류재갑, 「신인조화 사상의 의미와 실천적 함의」, 『대순진리학술논총』 3, 2007.

- 마노 다카야, 『도교의 신들』, 이만옥 옮김, 서울: 들녘, 2001.
- 무라야마 지준, 『조선의 유사종교』, 최길성·장상언 공역,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1.
- 박마리아, 「대순진리회와 도교의 신앙체계에 관한 비교」, 『신종교 연구』 24, 2011.
- 박상규,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종교연구』 70, 2013.
- 배영희, 「巫歌에 나타난 數 ‘九’의 상징성」, 『한국민속학보』 5, 1995.
-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 서울: 산치림, 2005.
-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다카시, 『조선무속의 연구(하)』, 심우성 옮김, 서울: 동문선, 1991.
- 안동준, 「북방계 신화의 신격 유래와 도교 신앙」, 『도교문화연구』 21, 2004.
- 안중운, 「철학적 측면에서 본 신인조화론」, 『대순사상논총』 3, 1997.
- 에릭 샤프, 『종교학-그 연구의 역사』, 윤이흠·윤원철 옮김, 서울: 한울, 2007.
- M.엘리아데, 『성과 속』, 이은봉 옮김, 서울: 한길사, 2001.
-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 『종교의 의미와 목적』, 길희성 옮김, 칠곡: 분도출판사, 1991.
- 윤기봉, 「불교 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 윤석산 주해, 『초기동학의 역사 道源記書』, 서울: 신서원, 2000.
- 윤석산, 『천도교』,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2006.
- 윤이흠, 『한국종교연구』 3, 서울: 집문당, 1991.
- , 『한국종교연구』 6, 파주: 집문당, 2004.
- 이경원, 「대순상제관 연구」, 『대순사상논총』 1, 1996.
- , 「한국 근대종교에 나타난 天의 인격성 고찰」, 『한국종교사 연구』 7, 1996.

- _____, 「대순신관과 신인조화의 이상」, 『대순사상논총』 3, 1997.
- _____, 「대순사상의 신관연구」, 『종교연구』 34, 2004.
- _____,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문사철, 2010.
- 이능화, 『조선도교사』, 이종은 옮김, 서울: 보성문화사, 2000.
- 이성구, 「四神의 形成과 玄武의 起源」, 『중국고중세사연구』 19, 2008.
- 이재원, 「한국 신종교의 우주관 연구-대순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이항녕, 「대순사상의 우주사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1, 1996.
- _____, 「신인조화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3, 1997.
- _____, 「해원상생사상의 현대적 의의」, 『대순사상논총』 4, 1998.
- 임영창, 「대순사상의 신관고」, 『대순사상논총』 1, 1996.
- _____, 「대순사상의 신관고(二)」, 『대순사상논총』 2, 1997.
- 장병길, 「해원상생의 본질고」, 『증산사상연구논문집』 5, 1979.
- 정재서, 「한국 도교의 고유성」, 『한국 전통사상의 특성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_____,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중국신화 속의 한국신화」, 『중국어문학지』 25, 2007.
- _____, 『이야기 동양신화』, 파주: 김영사, 2010.
- 주명준 외, 『한국인의 사후세계관』, 전주: 전주대학교 출판부, 2001.
- 주현철, 「신인조화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3, 1997.
- 진기환, 『중국의 토속신과 그 신화』, 서울: 지영사, 1996.
- 진정애, 「보천교와 무극도의 신앙대상에 대한 고찰」, 『신종교연구』 25, 2011.
- 차선근, 「해인에 대한 고찰」, 『상생의 길』 2, 2004.
- _____, 「강증산의 대외 인식」, 『동아시아종교문화연구』 2, 2010.
- _____, 「정역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연구-우주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0, 2010.

- , 「중국 초기 민간도교의 解冤結과 대순진리회의 解冤相生 비교연구」, 『종교연구』 65, 2011.
- , 「수운과 증산의 종교사상 비교연구-하늘관과 수행관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9, 2012.
-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서울: 민속원, 2003.
- 최동희·이경원, 『대순진리의 신앙과 목적』,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0.
- 최동희, 「대순신앙의 대상에 대한 연구(I)」, 『대순사상논총』 1, 1996.
- 최영길, 「무함마드의 승천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논총』 13,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 최준식, 「왕중양과 강증산의 삼교합일주의」, 『종교연구』 5, 1989.
- 표영삼, 『동학(I)-수운의 삶과 생각-』, 서울: 통나무, 2004.
- 何 新, 『신의 기원』, 홍희 역, 서울: 동문선, 1990.
- 한병철·한병기, 『칼과 역사와 무예』, 서울: 학민사, 2000.
- 홍범초, 『증산교개설』, 서울: 창문각, 1982.
- 황선명, 「한국 종교사에 있어서 대순진리 종교사상의 의의」, 『대순진리학술논총』 1, 2007.
- 『道敎の本』, 東京: 學習研究社, 1992.
- 馬書田, 『中國道敎諸神』, 台北: 國家出版社, 2003.
- 陸西星, 『封神演義』, 臺北: 三民書局股份有限公司, 2006.
- 李叔還, 『道敎大辭典』, 臺北: 巨流圖書公司, 1986.
- 李遠國, 『神霄雷法』,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3.
- 鍾靈馨光, 『道敎諸神說』, 台北: 益群書店股份有限公司, 2002.
- Kessler, Gary E., *Studying Religion*, New York: McGrawHill, 2006.

▪Abstract▪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Outlook
on Highest Ruling Entity in Daesoonjinrohoe (I)**
- Focusing on Descriptions for Highest Ruling Entity
and It's Meanings -

Cha Seon-keun

Daesoon Institute of Religion & Culture

This paper is to indicate research tendencies of faith in *Daesoonjinrihoe* and controversial points of those, and to consider the outlook on *Sangje* after defining it as theological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for *Gu-Cheon-Sang-Je* (High-est ruling Entity that is the object of devotion in *Daesoon-jinrihoe*). As the first introduction to the work, various descriptions for *Sangje* are arranged and the meanings of those are analyzed.

In brief, first, the name of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 expresses the fact that the authority of *Sangje* (the Supreme Entity) is exposed by spatial concept *Sangje* dwells in Ninth Heaven. This fact can be compared with the doctrines Allah in Islam and Jehovah in Christianity each are dwelled in Seventh Heaven. And the name shows *Sangje* is the ruler who reigns over the universe by using

yin and yang.

Second, the name,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 is imported from China Taoism because it has been in *Ok-Chu-Gyeong* (the Gaoshang shenlei yushu). But in fact it's root is in Korea because *Buyeo* and *Goguryeo*, the ancient Korean nations, have the source of the name. While the name is not the Supreme Entity in China Taoism, it is the Supreme Entity in *Daesoonjinrihoe*. This fact is a important difference.

Third, arbitrarily or not, the name,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 is put on the image of 'resolution of grievances'. The reason is that many peoples in Korea and China has called the name for about 1,000 years ago to help their fortunes and escape predicaments.

Forth, not only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 but also the name, Three Pure Ones and *Ok-Cheon-Jin-Wang* (Yuqingzhenwang) in China Taoism used as the Highest ruling Entity in *Daesoonjinrihoe*. But the relations between three Pure Ones and *Ok-Cheon-Jin-Wang* and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 in *Dae-soonjinrihoe* are different from that in China Taoism.

Fifth, *Sangje* is associated with the Polaris divinity of *Tae-Eul*, view on God in Oriental Cosmology. The description *Tae-Eul* as well as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 is indicated *Sangje* is linked to the faith of *Buyeo* and *Goguryeo*.

Sixth, *Sangje* is not only *Mugeuk-Sin* (The God of The Endless) who supervise the Endless but also *Taegeuk-Ji-*

Cheon-Jon (The God of The Ultimate Reality) who supervise the Ultimate Reality. These descriptions directly display the fact *Sangje* is a creator.

Seventh, in case explaining *Sangje*, the point of view is necessary that grasps the whole viewpoints *Sangje* 'was' Hidden God(*deus otiosus*) and 'is' Unhidden God after Incarnation.

Eighth, *Sangje* is *Cheon-Ju* in *Donghak*, but different from that. *Cheon-Ju* in *Donghak* has both transcendence and immanence in tightrope tension, but *Cheon-Ju* in *Daesoonjinrihoe* emphasize transcendence than immanence. That difference is the result of the fact *Cheon-Ju* in *Donghak* was a being having revealed a man and *Cheon-Ju* in *Daesoonjinrihoe* was a being having incarnated after revealing a man.

Ninth, *Sangje* is *Gae-Byeok-Jang* who is the manager of the transforming and ordering the Three Realms of the World by the Great Do which is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and *Hae-Won-Sin* who is the God of resolution of grievances.

Key words : Highest ruling Entity, *Gu-Cheon-Eung-Won-Nweh-Seong-Bo-Hwa-Cheon-Jon*, *Mugeuk-Sin* (The God of The Endless), *Taegeuk-Ji-Cheon-Jon* (The God of The Ultimate Reality), Three Pure Ones, *Ok-Cheon-Jin-Wang* (*Yuqingzhenwang*), the Great Creative Entity and Lord of the Ninth Heaven, *Tae-Eul*, *Cheonju* (the Lord of Heaven), *Gae-Byeok-Jang* (the manager of the transforming and ordering the Three Realms of the World, *Hae-Won-Sin* (the God of resolution of grievances),

Ok-Chu-Gyeong (the Gaoshang shenlei yushu),
Incarnation.

- ◎ 투 고 일 : 2013년 8월 31일
- ◎ 심 사 기 간 : 2013년 10월 16일~29일
- ◎ 계 재 확 정 일 : 2013년 11월 19일